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GREENWAY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06호

Tuesday, April 30, 2024 A

그는 살인자였나, 피해자였나

LA폭동 32주년 기획

배심원단은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당시 15세 사진)에게 총을 쏜 한인 여성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흑인사회는 분노했다. 형량의 가벼움 때문이다. 계획되지 않은 살인 사건이었으나 '2급 살인'은 적절했지만 흑인사회의 광기는 LA를 집어삼켰다.

32년 전 1992년 4월29일 발생한 LA폭동의 도화선이 된 두순자씨 사건이다.

본지는 LA폭동 32주년을 맞아 당시 가수 제2항소법원 5지부의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폭동 발생 9일 전(1992년 4월21일)에 나온 판결문이다. 판결문에는 판사의 법리적 해석은 물론 당시 이민자의 처절했던 삶에 대한 항변 등이 생생하게 적혀있다. 판결 내용을 토대로 당시 사건의 본질을 되짚었다.

LA카운티 검사들은 원심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즉각 항소했다. 두순자씨는 원심에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는 집행유예를 결정한 원심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게 골자다.

한인사회는 물론 전국의 주류 언론들이 주목하는 사건이었다. 항소법원은 모든 과정을 다시 세세하게 살펴야 했다. 그러려면 원점부터 사건을 훑어야 했다.

두씨는 1976년에 도미했다. 공교롭게도 숨진 라타샤 할린스도 그해에 태어났다. 두씨는 봉제공장에서, 남편(빌리 두)은 수리공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첫발을 뗐다.

부부는 10년간 밤낮없이 일해 좀 자돈을 모았다. 샌퍼넌도밸리의 리커스토어를 사고 판 뒤 소거스 지역에



두순자 사건은 32년 전 LA폭동을 촉발했다. 당시 법정에서 출두했던 두씨의 모습. (중앙포토)



서 새 리커를 차렸다. 사건이 발생했던 두번째 가게인 사우스LA의 '엠파이어 리커'를 매입한 건 1989년의 일이다.

지인들은 두씨 부부에게 '위험한 지역(bad area)'이라며 매입을 뜯어 말했다. 아들(조셉 두)은 법원에서 당시 부모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마치 전쟁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았다”

리커 주변은 마약상부터 갱단원들까지 늘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게에서 부모를 돕던 아들조차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다. 갱단의 협박은 다반사였다. 너무 무서워서 2주간 가게를 닫은 적도 있다. 두씨 가족은 심지어 갱단을 만나 사정을 봐달라 부탁할 생각까지 했다. 두씨는 보호관찰관에게 “훗날 깨달았지만 그건 순진한(naive)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1991년 3월 16일이었다. 갱단 위협에 시달리던 아들을 소거스 지역에

가에서 일하게 하고 대신 두씨가 엠파이어 리커로 나왔다. 남편은 전날 늦게까지 일한 탓에 잠시 차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라타샤가 가게로 들어왔다. 두씨는 라타샤가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 가방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 물론 돈을 내기 전이다. 평소에도 절도 사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두씨는 라타샤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두씨는 법정에서 “주스 값을 지불하려 했다면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했는데 없어서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라타샤는 곧 계산대로 향했다. 이 부분에서 또다른 증인은 “당시 두씨가 라타샤에게 주스를 훔치려 한다면 ‘나쁜 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증언했다.

두씨는 주스값을 내라고 했다. 그러자 라타샤는 “어떤 오렌지 주스요?”라고 답했다. 순간 두씨는 절도범이라고 확신했다.

라타샤의 옷을 끌어당기고 가방에 있던 오렌지 주스를 꺼내려 했다. 감정이 격해졌다. 라타샤가 먼저 주먹으로 두씨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했다. 두씨는 쓰러졌고, 가방 안에 있던 오렌지 주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두씨는 할레발떡 일어나 의자를 집어 라타샤에게 던졌지만 가격하지는 못했다. 곧바로 계산대에 숨겨뒀던 권총(38구경)을 꺼내 뒤돌아나간 라타샤를 쏘았다. 총격을 가한 자리와 라타샤 간의 거리는 불과 3피트였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라타샤는 즉사했다. 손에는 ‘2달러’가 있었다.

검찰은 계획된 의도적 범행이라 판단, 두씨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 5면 'LA폭동'으로 계속 장열 기자

남편 살해 한인 여교수 25년형·복역 10년 선고

의자에 결박 과정에서 질식사 유가족 “말도 안 된다” 울먹여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했던 한인 여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25년 형에 복역 10년을 선고했다.

유가족은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자 울부짖으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오와주 지역 언론인 디모인레지스터는 델리스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형량 공판에서 지난 2020년 2월 남편 남성우(당시 41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심슨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 박고운(45)씨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또, 판사는 유가족에게 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판사는 과실치사, 3급 납치,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일부 병합(concurrently)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복역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고운(오른쪽) 전 심슨칼리지 교수가 판사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KCCI News 캡처]

판결에 앞서 유가족 중 한 명인 남씨의 여동생은 마지막 증언에서 “오빠의 끔찍한 죽음 이후 우리 가족은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오빠는 저 여자에 의해 고통받으며 죽어야 했고 저 사람은 오빠의 영혼을 잡아먹은 악마”라고 울먹였다. 장열 기자

▶ 5면 '한인 여교수' 로 이어집니다



영수회담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되기 전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여 발언하고 있다. 회담은 당초 1시간가량 예정됐지만 2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관계기사 2, 10면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예기 물품지킴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5/6 - 5/10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윤·이 '의대증원' 빼곤 평행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한 130분

용산서 영수회담, 합의문은 없어
이 "국민, 말 잘못하면 잡혀갈까 걱정"
윤 "예상하고 있었다, 좋은 말씀 감사"
용산·야당 '협치·소통 첫걸음'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30분간 같이 앉았지만, 한 곳을 바라보지는 못했다.

29일 오후 2시 용산 청사 2층 대통령 집무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 라운드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은 130분 뒤 이렇다 할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났다. 양쪽 모두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말해 왔고 회담은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공통분모보다는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배석자를 물리친 1대1 대화도 없었다.

선공은 이 대표가 했다. 두 사람 사이 인사말 뒤 퇴장하려던 기자들을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불러세운 이 대표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 "행정 권력으로 야당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 등 직설을 쏟아냈다.

진지한 표정으로 듣기만 하던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자세한 말씀 감사하다"고 반응했다. 비공개 전환 이후는 윤 대통령의 반

윤석열 대통령	쟁점	이재명 대표
의대 증원 불가피	의대 증원 의료개혁	필요성엔 공감, 국회 공론화특위서 논의해야
국회 제출 법안에 법적 문제 해소해야	이태원 특별법	유가족 한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수용해야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은 대통령 결단의 문제
내년 예산안에 반영, 추경 통한 증액은 없다	R&D 예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 한꺼번에 처리해야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연금 개혁	신속하게 필요 입법을 추진하자

격이었다. 이후 "주제별 대화 시간이 윤 대통령 85%, 이 대표 15%가량으로 윤 대통령의 말을 이 대표가 대부분 듣는 식이었다"는 게 민주당 배석자들의 전언이다.

회담 후 각기 진행된 브리핑의 방점도 다른 곳에 찍혔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오후 5시10분 청사 브리핑에서 "합의에 이르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두 사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

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용산 브리핑 후 20분 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한 충돌도 있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그런 제안이 나오자 (내 주변의) 다른 경로에서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단칼에 잘랐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다음 만남의 여지는 남았다. 대통령실은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이 수석)고 평가했고, 민주당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이 대표)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차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KBS 9시 뉴스에 나와 "제가 회담 말미에 다음번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는 걸 제안했다"며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종빈(정치외교학과) 명지대 교수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양쪽의 접점이 전무했다"며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지지층만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도훈 수석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에 출연해 다음달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일훈·성지원 기자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급" 대통령 "어려운 분 지원 바람직"

이태원특별법 등 쟁점별 시각차
용산 "유족 지원·재발 방지 공감"
야당 "대통령, 독소조항 있다며 거부"
대통령 "DJ때 민정수석 부활" 언급

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사실상 거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시점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도훈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민생 정책은) 대통령이 결

단을 내리면 되는데 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의 방향과 결정 주체에 대한 생각도 엇갈렸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소득 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정부·여당이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시각차는 더욱 확연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범 통과를 요구했다. 비공개 회담에선 채상병 특검법은 거론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논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사전 조사,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며 "다만 민간조사위가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적 문제라 있어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독소 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

련해 1차 판결 났고 그 판결에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족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하고 함께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듣기만 했고, 이후에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DJ) 정부가 없었던 민정수석직을 부활한 일을 거론했다. 이 수석은 채널A에 나와 "(DJ 정부 때) 민정수석의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법무부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오현석·손국희 기자

워싱턴 날씨 (°F)

1일(수) 78~60	4일(토) 69~60
2일(목) 81~62	5일(일) 70~63
3일(금) 79~60	6일(월) 78~66

4월 30일(화) 87~65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러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부족한 종의 33년 목회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열린문 장로교회
김요셉 담임목사 취임
김용훈 원로 목사 추대



1 4대 김용훈 목사가 원로목사 추대식에서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2 5대 김요셉 담임목사가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3 피터 차 교수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다. 4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담임목사가 축도를 하고 있다.

열린문 장로교회(ODPC)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가 29일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영어권 담당 목사인 데이빗 장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취임예배는 트리니티 신학교 피터 차 교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상호의존교회’를 추구해 온 열린문 장로교회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조명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터 차 교수는 “ODPC의 가장 큰 축복은 1세대와 2세대간의 건강한 상호의존적 교회로 성장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역모델을 적용해 교회 성장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 아낌없이 공유하고 협력해 온 해가 통로가 되는 교회를 이끌었다”며 4대 김용훈 목사의 33년 목회를 격

려했다. 김요셉 목사를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원칙,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 담임목사 취임식에는 담임

목사 위임선서와 성도서약, 김요셉 목사의 취임서약이 진행됐다.

김요셉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이끌어 주신 김용훈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부어 주신 지난 40년의 은혜로운 교회 역사에 이

어 복음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후 담임이 된 김요셉 목사가 인도한 원로목사 추대식에서는 김용훈 목사의 33년 목회를 돌아보는 영상과 함께 박채곤 원로장로의 회고 및 감사인

사시간이 마련됐다. 김용훈 목사는 감사 인사에서 “부족한 종을 33년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준 성도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가장 건강한 시기에 김요셉 목사에게 바통을 전달할 수 있어 또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후 원로목사 추대 공포,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송민호 목사(토론토영락교회)의 축사가 영상으로 전해졌다.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축도로 이취임식 예배는 마무리됐다.

한편 김용훈 원로 목사는 추후 T.I.C.I (Thriving Immigrant Congregations Initiative)를 통한 이민교회 코칭과 목회학 박사 과정 세미나, 선교지 목회자들의 목회 코칭 사역에 힘을 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미 기자

대학 해방구 선포... 체포·정학 사태 줄줄이

GW, UVA, 메리워싱턴 대학 등 대학가 이스라엘 규탄 시위 격화

전국 대학가에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최소 1천여명이 체포되거나 정학 등의 징계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108명이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촉박했으며 워싱턴 지역에서도 최소 8개 이상의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 대학 당국은 최근 발생한 시위를 주동하고 난동을 벌인 학생 7명에 대해 정학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격분한 조지워싱턴 대학 학생들이 닷새째 수백여명이 학교 광장에 모여 시위를 이어갔다.

정학조치를 당한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 진입을 금지 당했으나 나머지 학생들이 철제 차단막을 제거하고 ‘해방구’를 선포하는 등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잔디밭 광장에 누워서 시위를 전개하는 연와시위가 이어지고 있



시위대가 점령한 조지 워싱턴 대학 캠퍼스 [로이테]

다. 시위대는 버지니아 대학 유대인 커뮤니티와 법정공방까지 이어가고 있다. 한 학부 형이 팔레스타인을 옹호한 교수들과 시위 주동 학생을 증오범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에 위치한 메리 워싱턴 대학, 블랙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텍,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 대학

에서도 시위로 인한 체포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캠퍼스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당국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연행됐다.

학생들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이스라엘과의 모든 교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공화)이 학생 시위에 대응해 방위군을 파견을 주장하는 등 강경책을 주문하면서 공화당은 학생 커뮤니티 내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민주)도 시위대가 하마스도 함께 비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공화당 주지사 집권 지역에서 대학 내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조기 투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대학가에서의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던 적이 있었다. 김욱재 기자

“오늘까지 학자금 융자 통합해야 탕감”

학부모 융자 일정조건 충족시 사라져

그동안 세차례 산발적으로 발표된 연방정부 학자금 탕감책의 수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4월30일)까지 각종 형태의 연방정부 융자를 합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융자를 모두 합병해야 수혜액을 극대화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합병 대상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는 FFEL 융자,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한 연방교육부융자, 페넌트 플러스 융자, 퍼킨스 융자 등이다. 어떤 종류의 융자를 얻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해당 웹사이트(studentaid.gov)나 콜센터(1-800-433-3243)으로 하면 된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넌트 플러스 융자의 경우 최소 25년 혹은 300개월 납부해 왔다면 나머지 잔액을 자동 탕감받을 수 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400만명 이상이 융자 잔액 전액을, 1천만명이 최소 5천달러 이상을 탕감받고 2300만명이 이자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연방교육부는 모든 신청을 마무리하고 올여름 특정 일시에 일제히 부채를 탕감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5 in 1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융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한국 입국시 검역정보 제출 뎅기열 지역에 미국 포함

한국 정부가 미국을 뎅기열 검역관리지역 대상국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할 때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거나, 건강상태 질문지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26일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자로 뎅기열 검역관리지역을 기존 56개국에서 86개국으로 늘리며 미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는 Q-CODE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받거나, 별도로 항공사가 기내에서 배부하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다.

온라인 시스템(qcode.kdca.go.kr)에서 개인정보(여권·이메일 등)와 항공권이나 선박정보, 체류정보, 건강상태 정보 등을 입력한 뒤 받은 QR코드를 입국 검역 시 검역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한다.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며, 코로나19 확진시에도 '5일 격리 권고'에서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까지 격리 권고'로 바뀐다.

김은별 기자

한인 경비업체 절반이 '면허 취소·중지'

34개중 12곳 정상면허 소지 일부는 취소에도 영업 계속 무면허 경비원 고용도 문제

LA 한인 경비업체 중 절반 이상이 시설 경비 사업 라이선스가 취소됐거나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4일 한남체인의 69세 한인 경비원이 강도 용의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당한 가운데, 한인 경비업체들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타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5일 본지는 한인 업소목록들을 토대로 LA 한인 경비업체들을 취합한 결과 34개로 집계됐다. 그중 30곳이 본사가 한인타운에 위치한 업체들이었다.

경비업체들에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주정부 보안조사국(BSIS)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34개의 업체를 모두 조회한

결과 그중에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가진 곳은 단 12곳(35%)이었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로는 '가주프라이언트', 'DM', '미주', '사이구', '세븐스타', '에버가드', '에이펙스', '조이스', '팬암', '프리미어가드', '한미' 경비회사 등이 있었다.

다른 13곳(38%)은 라이선스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3곳(9%)은 중지됐고, 6곳(18%)은 조치가 안 되는 곳들이었다. 라이선스가 취소된 업소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업한 상태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라이선스가 취소됐음에도 버젓이 정상 영업을 한다고 본지에 알렸다.

또한 3곳은 라이선스가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24일 부상을 입은 한인 경비원이 소속된 'CM 시큐리티'도 올해 7월까지 라이선스가 유효하나 중지

(suspended no qualifier)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CM 시큐리티의 대표는 "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몇 개 챙기지 못해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 쓰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라이선스가 중단된 또 다른 'S' 경비회사는 "사실상 운영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 라이선스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상 운영하고 있는 한인 경비업체 관계자들은 회사가 라이선스가 있어도 소속 경비원들이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도 타운에 많다고 전했다.

거기다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60세 이상의 고령 경비원들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온마켓에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이펙스(Apex)'의 레이먼드 최

시장은 "싼값에 허술한 경비업체들을 고용하는 건물주들이 많다"며 "그런 경비업체들은 인력이 없으니 일단 하겠다는 사람이면 아무나 데려다 업무에 투입시킨다. 총기는 당연히 없고 경비 라이선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비원들은 위급상황 시 본인마저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비업체 대표는 "LA 범죄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한인 마켓들의 경우 대부분 60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경비를 맡고 있다"며 "한남체인이 있는 몰도 입구가 3곳인데 마켓에 시니어 경비 1명뿐이라는 점은 안타깝다. 요즘 홈리스나 범죄자들이 무기 들고 경찰과 맞붙는데 나이 드신 시니어 경비원들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

폭동 되새기며 유대감 나눠

LA한인회 차세대 토론회 보도에 없던 상황들 배워

한인 차세대들이 4.29폭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4.29폭동 32주년을 맞아 비영리기관 DOD(Days of Dialogue)와 함께 지난 27일 LA한인회관에서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을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DOD 모더레이터들의 지도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차세대드보켓츠(NGA) 학생과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4.29폭동 발발 배경과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참가자들은 ▶한인으로서 살아가는 경험 ▶4.29폭동에 대한 생각 ▶예방법 ▶부당함에 대한 대응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에 삶에 미친 영향 등을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로건 이(로즈먼트중 8학년)군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사는 환경에는 다양한 인종적 경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바꿀지 토론했다. 경계를 허물기 위해 더 개방적인 자세와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아(이마쿨레이드허트고 9학년)양은 "참가자들 모두 이민자로서의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대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테드 정(사이언스아카데미 STEM 매그넷 10학년)군은 "잊혀질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인 4.29폭동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그룹 토론에 참여한 스티브



27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토론회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분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직접 겪었던 경험과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4.29폭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소셜미디어나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주류 미디어에 의존해야 했는데 미디어들이 발발 배경이나 이유보다는 한인인 흑인 커뮤니티간의 문제로 이 슈화한 것에 대해 참가자들 모두 공감하며 지적했다. 앞으로 타 커뮤니티와도 이런 소통의 기회가 많아져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더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4.29폭동에 대해 중고생들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루프톱 코리안' 정도로만 알고 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차세대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요다 프라푸치노 들어봤나? ... 스타벅스 비밀 음료

음료 255개 조합, 17만 개 제조 해리포터 버터비어·오징어게임 등

스타벅스 메뉴판에는 없지만 입소문을 타고 알려진 '시크릿 음료'가 있다.

시크릿 음료는 음료 하나를 시킬 때 다양한 맛의 시럽, 휘핑크림, 쿠키 크림블 등의 속재료를 추가하거나 빼고 용량을 조절해서 특이한 색과 맛을 제조하는 것으로 젊은층에서 유행하고 있다.

요리 잡지 테이스트오브홈에 따르면, 시크릿 메뉴의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스타벅스는 255개 기본 메뉴와 속재료를 조합할 수 있는 음료만 17만 가지에 이른다. 소비자들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자바칩(초코칩), 크림블, 시럽 등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시크릿 메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그중에서도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

하게 먹기 좋은 시크릿 메뉴로는 스키틀즈 프라푸치노, 해리포터 버터비어 프라푸치노, 킷캣 프라푸치노, 베이비 요다 프라푸치노, 초콜릿 커버 스트로베리 드링크 등이 있다.

젤리 사랑인 스키틀즈 맛을 즐길 수 있는 '스키틀즈 프라푸치노'의 주문 방법은 그란데(미디엄)사이즈 기준 스트로베리 크림 프라푸치노에 클래식 시럽을 빼고 펌프 3회의 바닐라 시럽과 펌프 1회의 라즈베리 시럽을 넣으면 새콤달콤한 스키틀즈의 맛이 난다. 단, 라즈베리 시럽은 일부 매장에서만 제공 중이다.

해리포터 팬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해리포터 버터비어'는 바닐라 빈 크림 프라푸치노를 주문하고 펌프 3회의 토핑 시럽과 캐러멜 시럽을 추가한 뒤 휘핑크림과 캐러멜 드리즐을 음료 위에 뿌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 영국 작가 J. K. 롤링의 유명 판타지 소설 해



스타벅스에는 입소문으로만 알려진 시크릿 메뉴들이 즐비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스타워즈 베이비 요다 프라푸치노, 해리포터 버터비어 프라푸치노, 스키틀즈 프라푸치노, 킷캣 프라푸치노. [특집 캡처]

리포터에 나오는 '버터비어'의 크림미 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초콜릿 '킷캣'의 맛을 구현한 '킷캣 프라푸치노'도 인기다. 바닐라 빈 크림 프라푸치노에 자바칩과 모카 드리즐을 추가한 뒤 음료 위에 휘핑크림, 모카 드리즐, 쿠키 크림블 혹은 자바칩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이 음료는 달콤쌔스름한 초콜릿 맛에 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베이비 요다(그

로구)에서 영감을 받은 '베이비 요다 프라푸치노'도 영화 팬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차 크림 프라푸치노에 캐러멜 드리즐을 뿌린 뒤 휘핑크림과 캐러멜 시럽, 캐러멜 크런치 토핑을 음료에 올리면 마차의 싱그러움과 캐러멜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룬다. '초콜릿 커버 스트로베리 드링크'도 젊은 세대에 인기 메뉴다. 콜드루에 펌프 2회의 라즈베리 시럽과 콜드 폼, 스트로베리 휘레, 모카 드리즐

을 추가하면 된다. 콜드브루의 진한 커피 맛과 과일 향이 어우러지면서 딸기 풍류 초콜릿과 같은 맛이 난다.

이외 오징어게임 프라푸치노, 바비 프라푸치노, 카라임파이 리프레셔, 캐리비안 리프레셔, 코튼캔디 프라푸치노, 오레오 프라푸치노도 시도해볼 만하다. 시크릿 메뉴는 정식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바리스타에게 직접 제조법을 전달해야 한다.

스타벅스 앱에서 주문하면 쉽고 빠르게 주문을 끝낼 수 있다. 단, 일부 매장에서는 재료가 없거나 메뉴에 대해 잘 몰라서 시크릿 메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정식 메뉴가 아닌 만큼 주문이 잘 못돼 원하는 맛이나 색을 얻을 수 없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 스타벅스 시크릿 메뉴만 모은 웹사이트(starbuckssecretmenu.net)에서 더 자세한 레시피를 확인하면 된다. 정하은 기자

“운전 정보 수집·공유” 기아 집단 피소

“동의 없이 데이터 추적·저장”



기아차가 운전자 데이터를 충분한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법률전문매체 톱클래스엑션스는 원고 재클린 본이 운전자 데이터를 완전한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LNRS)과 공유했으며 데이터가 보험사 등 제삼자에 판매됐으며 기아미국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보

도했다. 펜실베이니아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서에 따르면 원고 측은 보험사들이 LNRS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를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평균 속도를 비롯해 운전자 시속 80마일 이상 주행한 비율, 급가속 및 급제동 빈도와 강

도, 심야 운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일련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통해 업체들이 운전자 데이터 판매로 이익을 얻지만, 운전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보험 견적이나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충분한 고지나 동의 없이 운전 데이터가 판매되거나 넘겨진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배상과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형 차량부터 운전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

운데 기아 측은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측은 “기아가 운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 데이터를 추적, 저장,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자들은 “수집된 데이터가 판매되고 보험사가 요율을 정할 때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GM과 온스타도 최근 동의 없이 운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LNRS와 공유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박낙희 기자

▶ 1면 '한인 여교수' 에서 이어집니다

반면, 박고운씨는 형량 공판 직전 마지막 발언에서 “나는 남편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후회하고 있다”며 “나는 남편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를 매우 사랑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판사가 복역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하자 법정엔 있던 남편의 유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며 울먹였다.

한편, 박씨는 2020년 2월 자택에서 남편 남성우(당시 41세)씨를 의자에 묶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뒤 테이프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입에 옷을 쑤셔 넣는 등 재갈을 물려 질식사케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시관은 남편의 사망 원인이 교살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범행 후 남편을 결박했던 증거를 은닉하려고 시도했다.

박씨는 지난 4일 검찰과 유죄 인정에 합의한 바 있다.

장열 기자

▶ 1면 'LA 폭동' 에서 이어집니다

반면 두씨의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위가 아니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배심원단은 두씨 사건을 2급 살인 혐의 기준에서 유죄라고 봤다. 집행유예 판결의 맥락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급 살인이라도 집행 유예 판결은 형법 1203조에 따라 재판부의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정의 등에 부합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총기 사용 범외에는 집행유예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두씨의 총기 소지를 범외가 아닌 방어용 목적이라고 본 셈이다.

두 번째는 두씨에게 유사 범외 또는 폭력 전과가 없고 도발, 협박 등이 심한 환경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봤다. 마지막으로 징역은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것인데 보호관찰관 보고서에 근거해 두씨가 사회에 위협을 가하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두순자 사건의 법정 기록은 여기서 끝난다. 역사적 분기점이 된 사건의 판단 기준은 ‘팩트’에 있지 않다. 방아쇠를 당기게 한 것도 누적된 분노였고, 폭동이 발발한 이유 역시 누적된 분노였다. 달랐던 건 사건을 바라본 사람과 시각이었다. 두순자씨는 살인자였지만 그 역시 피해자였다. 장열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유저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저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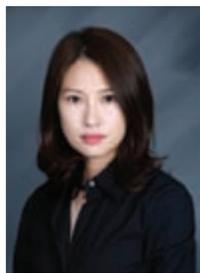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미·사우디 방위협정 완료 근접”

이스라엘-사우디 수교 진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사우디 방위협정이 완료에 근접했다고 말했다고 29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해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한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합의 측면에서 함께 진행해 온 작업이 잠재적으로 완료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이는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다. 사우디는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오른쪽)이 29일 리야드 공항에서 사우디 외무부 관리의 영접을 받고 있다. [리야드 로이터]

(NATO·나토) 수준의 상호방위협정 체결과 민간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허용 등 지원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관련 논

의가 한동안 중단됐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 중단 없이는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국의 관계 정상화 논의의 진전은 가자 휴전 협상과도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마존 주문 상품들이 배달 트럭에 적재되고 있다.[로이터]

유통업체 ‘배송 속도 경쟁’ 더 가열

아마존, 1일 배송률 60% 월마트, 드론 활용 30분 이내 배송

미국에서 쇼핑 배송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의 1일 배송률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아마존은 지난 1분기 미국 내 60개 대도시에서 멤버십인 프라임을 통해 주문한 상품의 약 60%가 당일 또는 다음날 도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약 50%보다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아마존의 ‘1일 배송’이 더 빠르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존은 배송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송 시간을 2일에서 1일 이내로 줄이는 데 막대한 자금과 자원을 쏟아부었다.

이를 위해 창고 및 배송 네트워크를 개편해 하나의 창고에 집중된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8개의 거점 창고를 두는 체제로 전환했고, 2019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55개 이상의 당일 배송 센터를 설립했다.

축구장 26개 크기의 이 센터에는 각 도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을 선별해 보관하고 있다.

아마존은 당일 및 다음날 배송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향후 몇 년 내에 미국 내 당일 배송 시설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고객들에게 주문 상품을 빠르게 전달하면서 고객들은 쇼핑을 위해 아마존을 선택한다”며 “지난해 4분기 필수품 사업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우리의 일상 필수품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썼다.

업체 간 빠른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마존의 라이벌인 월마트는 드론을 이용해 30분 이내에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타깃’은 지난달 35달러 이상 주문 시 한 시간 이내에 당일 배송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중국 전기차, 사고 후 문 안 열렸다”… 탑승자 전원 사망

중국에서 전기차 추돌 사고 이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간) 중국 평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산시성원청시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토(AITO) M7’ 차량이 시속 115km로 주행 중 앞서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사고 직후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다. 주변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구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차 안에 있던 남성 2명과 2살 된 아기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사고 차량의 누나라고 밝힌 여성이 차량 결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여성은 사고 차량이 남동생이 3개월 전에 구매한 최신형 모델이었다며 사고 당시 차량 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았고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바이두에 올라온 추돌사고 후 화염에 휩싸인 아이토 M7 사진

현지 경찰은 차량 결함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아이토 제조사 측은 웨이보 계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에어백과 동력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결함 의혹을 부인했다.

‘체감기온 50도’에 학교도 쏠다

동남아 뒤틀린 기록적 폭염

체감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동남아시아를 덮쳤다. 폭염 피해가 커지면서 각국은 휴교 등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섰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필리핀 정부는 체감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시민의 교통수단인 ‘지프니’ 운전사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이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원격 수업을 한다. 일부 공립학교와 수도 마닐라 일대 일부 지역 학교는 이미 대면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24일엔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손 섬에 전력 공급 적색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다른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례적인 폭염으로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미얀마



29일(현지시간) 마닐라의 한 초등학교 교실.

최대 도시 양곤과 제2도시 만달레이의 기온이 각각 40도, 44도까지 오르면서 학교 수천 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다.

태국에서도 연일 40도를 웃돌면서 지난 27일 최대 전력 수요가 3만6356MW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동남아시아는 통상 3월부터 5월까지 가장 무더위지만,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한층 심해진 것으로 기상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엘니뇨 현상은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지혜 기자]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 무히카 암투병

재임 시절(2010~2015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던 호세 무히카(88·사진)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암 투병 중이라고 무히카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국민참여운동(MPP)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무히카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금요일 건강검진에서 식도암 진단을 받았다”며 “저는 20년 이상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서, 몸상태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풍부한 비유를 바탕으로 한 각종 어록으로도 유명한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전에도 제 인생에서 저승사자가 한 번 이상 침대 주위에 있었지만, 이번엔 (그가) 명백한 이유로 큰 낫을 준비해 온 것 같다”며 “나는 할 수 있는 한 내 사고 방식에 충실하게 전투를 계



외에서도 명성을 얻은 이 나라의 상징적인 정치인이었다. 특히 대통령 월급 대부분을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1987년형 하늘색 폴크스바겐 비틀을 타고 다니는 검소한 모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다.

대통령 관저 대신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 허름한 집에서 오랜 기간 출퇴근한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대통령 퇴임 후엔 상원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다 2020년 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를 떠났다.

무히카 전 대통령은 특유의 언변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인물로 꼽힌다.

“삶에는 가격 라벨이 붙어 있지 않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 “우리는 진짜 숲을 파괴하고 익명의 콘크리트 숲을 만들고 있다”, “유일하게 건강한 중독은 사랑의 중독” 같은 말은 여전히 인구에 회자한다.

자신의 암 투병을 알리면서도 그는 “인생은 아름답지만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젊은이에게 전하고 싶다”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우루과이 국내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는 무히카 대통령의 쾌유를 바라는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미국인들이 술 취한 선원처럼 돈을 써댄다

요즘 미국인의 씀씀이가 심상찮다. 올해 1분기(1~3월) 소비가 직전 분기와 견줘 2.5% 늘었다. 지난해 4분기(3.3%)보다는 못하지만, 올해 1분기의 월별 흐름을 보면 마지막 달인 3월에 가까울수록 미국인의 씀씀이가 더욱 커졌다.

그 바람에 예상치(2.5%)보다 낮은 1분기 미 경제 성장률 1.6%(연율 기준)을 경기둔화 또는 스테그플레이션(고물가+침체)의 신호로 보는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거의 없다. 사실 미 상무부가 내놓은 1분기 GDP 통계를 보면, 성장률이 낮아진 요인이 심각하지는 않다. 무역수지가 나빠지고, 연방정부의 지출과 기업의 재고 쌓기가 준 탓이다. 기업의 재고 증가는 GDP 통계에선 투자 증가로 잡힌다.

미 경제분석회사인 디시전이코노믹스의 엘런 사이나이 대표는 “무역 적자 확대나 정부의 지출 감소, 기업의 재고 감소는 일회성 사건”이라며 “미 성장의 메인 엔진은 힘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이나이가 말한 메인 엔진은 소비다. 미국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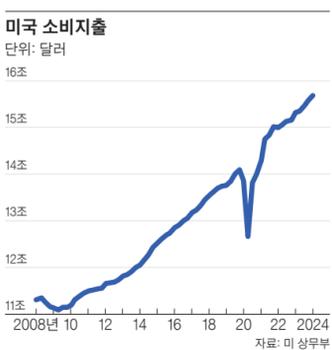
“2분기 다시 고성장 회복할 듯”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폴 애시워스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최신 보고서에서 “3월 이후 소비 흐름을 보면, 올해 2분기(4~6월)에 성장률이 3% 선으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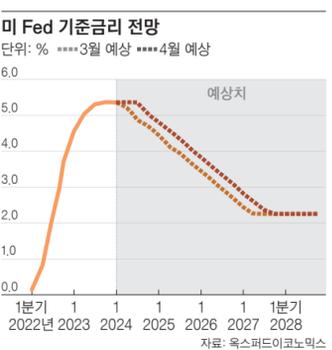
미국인의 왕성한 씀씀이는 제품과 월 등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실적자 증가→소비 등 총수요 감소→물가 하락을 기대했는데,



미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단위: %/연율 자료: 미 상무부



미국 소비지출 단위: 달러 자료: 미 상무부



미 Fed 기준금리 전망 단위: % **** 3월 예상 ***** 4월 예상 자료: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무사귀환한 선원이 기본 내뿜 통화 긴축에도 왕성한 씀씀이 Fed 기준금리 첫 인하 미뤄져 달러 가치 5% 더 오를 가능성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 마디로 1980년대 이후 한 세대(약 30년) 정도 유지된 통화정책이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월가 사람들은 놀라운 수사학적 재능을 발휘한다”고 미 금융역사가 존 스틸 고든이 몇해 전 기자와 통화에서 말했다. 아니



오랜 항해 끝에 항구에 돌아와 술에 취해 한껏 기분을 내는 선원들. 19세기 영국 화가 존 로커 작품. [사진 영국 그라니치왕립박물관]

나 다를까. 요즘 월가 사람들은 돈을 마구 쓰다시피 하는 미국인을 ‘술 취한 선원들(Drunken Sailors)’이라고 한다. 18~19세기 영국 런던 템즈강 선착장 주변의 선술집에서는 긴 항해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자축하는 뱃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에게도 공짜 술을 대접했다. 이런 술취한 뱃사람 모습이 통화 긴축에도 지갑을 활짝 여는 미국인 때문에 21세기에 소환된 셈이다.

근대 초기 영국 선원들은 인도나 중국 등으로의 원거리 무역을 통해 목돈을 쥐었다. 그렇다면 요즘 미국인들은 무슨 돈으로 왕성하게 소비하고 있을까.

사이나이는 대표는 “팬데믹 이후 일자리 창출이 아주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3월 사이 평균 27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호황의 기준인 월 21만 개를 여전히 웃돈다. 팬데믹 시기 노동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떠나는 바람에 임금도 많이 올랐다. 요즘 새로운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바람에 일자리 제공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팬데믹 시절 임금 상승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인의 임금·투자 소득 증가

두 번째 요인은 투자소득의 증가다.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상당수가 팬데믹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빅테크와 가상자산(코인) 열풍 덕분에 상당한 투자 이익을 거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으로 금리가 올라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미국 채 등을 주로 편입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해 연 5% 이상의 수익을 누렸다.

세 번째는 쏠쏠한 주택 임대수입이다. 사이나이는 대표는 “임대회사뿐만 아니라 50~60대 집주인 1100만 명이 상이 임대수입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과 투자 소득 덕분에 요즘 미국인들이 술 취한 선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인이 술 취한 선원이 되는 바람에 Fed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 애초 6월에 첫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지만, 1분기 미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9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그럴지는 내일(5월 1일)

종료되는 Fed의 정례 연방공개시장정책위원회(FOMC)의 성명서 등을 통해 가능해볼 수 있다.

고금리 2026년까지 이어질 수도

Fed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이든 고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서 고금리는 미국의 중립금리(R*, R스타)로 추정되는 2~2.5%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것을 말한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소비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가상금리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면 경기는 억제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3% 선을 맴돌 전망이다.

반면에, 영국과 유럽 등의 금리 인하는 6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유럽 사이 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올해 들어 달러 가치가 금리차 때문에 평균적으로 5% 정도 상승했다. Fed가 기준금리 인하를 늦추면, 캐피털이코노믹스 등 영미권 경제분석 회사들은 달러 가치가 올해 안에 추가로 5%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강달러 파고가 다가온다는 얘기도.

그런데 29일 한때 엔화는 달러당 160엔선까지 밀렸다. 원화는 달러당 1380원 선에서 오르내렸다. 엔화 가치가 160엔 선까지 밀리는 일은 영미 분석가들이 올해 하반기에나 일어날 사건이라고 봤는데, 외환시장이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 원화 가치도 예측보다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강남규 국제경제 선임기자

라틴아메리카의 강국 멕시코 정가에

보기 드문 인물들의 경쟁과 함께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고 있다. 멕시코에선 오는 6월 2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2만 명 넘는 선출직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1824년 연방정부 수립 이후 가장 판이 큰 선거다. 그중에서도 단연 관심이 쏠리는 자리는 대통령직이다. 특히 올해는 멕시코 역사상 최초로 유력한 후보 두 사람 모두 60대 여성이라는 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 여성 정치인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집권 좌파 국가재건운동(모르나)당의 후보인 클라우디아 세인바움(62) 전 멕시코시티 시장과 우파

야당 연합체인 광역전선의 통합 후보 소치틀 갈베스(61) 전 상원의원. 이들은 비슷한 나이 외에도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 무엇보다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공약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는 경제·마약·치안 등 복잡한 단한 문제들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고질적인 물 부족사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렸다. 엘니뇨 현상으로 강수량이 줄어 십 년 넘게 계속된 가뭄은 현재 최악의 상태이다. 국토의 80%가 가뭄에 허덕이며 전국 저수지

멕시코 대선에의 핫 이슈, 물 부족



오는 6월 멕시코 대선의 유력한 후보 세인바움(왼쪽 사진)과 갈베스. [AFP-EPA-연합뉴스]

의 저수량은 40%대로 줄었고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는 단수에 고통받고 있다. 상황이 최악인 동남부 치아파스주 주민들은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가장 많이 마신다는 오명까지 얻었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물 대신 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코카콜라로 갈증을 해소하며 심지어 아기에게도 플라 젓병을 물린다고 한다. 끔찍한 일이다.

이런 물 부족사태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공로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인바움 후보는 지속가능한 물 활용 30년 계획을 갖고 나왔다. 정부뿐 아니라 농업·산업·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액션을 취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편의 갈베스 후보는 세인바움의 집권당이 지난 6년간 물 부족 사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의 상수도망을 늘리고 기존의 파이프 누수 복구에 우선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1억2000만 인구의 절반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멕시코, 두 후보가 내놓은 방안 모두 물 부족 사태를 이룬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가 되든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이 임박했다는 사실. 수많은 남성이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여성의 리더십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안창희 글로벌협력팀장

다양한 할인보장 스페셜 이자 150대 이상의 중고차 보유 프래지던트 대상 수상

봄맞이 세일즈 이벤트

www.BillpageToyota.com

빌페이지토요타 컴

빌페이지 토요타

문제 없습니다

-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
- Bankruptcy 하신 분
- Foreclosure 하신 분
-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

2024 Highlander

정상가 \$42,553
세이빙 -\$2,771
판매가 \$39,782
Stock 82492

2024 4Runner

정상가 \$50,109
세이빙 -\$3,267
판매가 \$46,842
Stock 82192

2024 Tundra Platinum

정상가 \$69,391
세이빙 -\$4,370
할인가 \$65,021
Stock 8207

2024 Camry LE

정상가 \$27,889
세이빙 -\$1,800
할인가 \$26,089
Stock 82684

2024 RAV4 LE

정상가 \$31,734
세이빙 -\$1,520
할인가 \$30,214
Stock 82687

토요타 Certified Used Vehicle (보증중고차) 특선

Certified Used Vehicles

2019 Toyota Camry LE Sale Price \$16,000 Mileage: 97,523 Stock#: 82310B	2020 Toyota Corolla Hybrid Sale Price \$20,579 Mileage: 70,828 Stock#: P7629	2018 Toyota Camry LE Sale Price \$20,847 Mileage: 53,400 Stock#: P7617	2021 Toyota C-HR LE Sale Price \$24,255 Mileage: 18,660 Stock#: P7648	2020 Toyota RAV4 Hybrid LE AWD Sale Price \$24,255 Mileage: 73,504 Stock#: P7645	2019 Toyota Sienna Sale Price \$28,995 Mileage: 50,781 Stock#: P7661	2019 Toyota Highlander XLE AWD Sale Price \$31,475 Mileage: 41,668 Stock#: P7551	2023 Toyota Sienna LE Sale Price \$41,956 Mileage: 23,493 Stock#: P7596	2022 Toyota Tacoma TRD Sale Price \$40,818 Mileage: 20,101 Stock#: 82717A	2023 Chevrolet Express Cargo Sale Price \$35,895 Mileage: 47,497 Stock#: P7623

Uber | Lyft

우버/리프트 운영자분 도와드립니다!
\$750 리베이트 (달러에 문의 주세요!)

“빌페이지 토요타 한인팀이 항상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한인세일즈

김 광수
301.401.8685

매니징팀

제네랄 매니저 **자니 김**
세일즈 매니저 **손 박**
파이낸스 디렉터 **잔 조**

Bill Page TOYOTA

703.532.8800

2923 Annandale Rd.,
Falls Church, VA 22042

Sales Hours M-F 9am ~ 9pm
Sat 9am ~ 8pm / Sun 11am ~ 6pm

495

Annandale Rd.

Billpage Honda

Bill Page TOYOTA

Arlington Blvd.

애너데일에서 10분거리!

www.billpagetoyota.com

50

*Price include all applicable current manufacturer rebates. Additional factory rebates such as recent college graduate or military may be available. All vehicles are subject to prior sale. All prices are special internet prices and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offer, paid or private. All financing is subject to approved credit. All new vehicle prices include freight, tax, license and processing fee. ©2024 Toyota Motor Sales, U.S.A., Inc. All rights reserved. Toyota and the Toyota logo are trademarks of Toyota Motor Sales, U.S.A., Inc.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See dealer for details.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Since
1996

의료비 나눔 사업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CA와 NJ 지역의 CMM 회원은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vel 내용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unit	\$ 195	\$ 150	\$ 90	\$ 45
2units	\$ 365	\$ 290	\$ 180	\$ 90
3units	\$ 485	\$ 430	\$ 270	\$ 135
의료비 지원범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예방검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입원, 수술
본인 부담금	\$500 /년	\$500 /건	\$1,000 /건	\$5,000 /건

* 모든 Level에서 질병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11/2023 기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773-777-8889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의자 빼준 윤 대통령, 이재명 5400자 모두발언에 표정 굳어

이 “20분 거리 오는데 700일 걸려” 독재·지배·탄압 등 단어 쓰며 압박 여론 “이, 지지층 향한 메시지 낸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윤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의 시작은 무난했다. 오후 1시30분쯤 국회에서 검정 카니발을 타고 출발한 이 대표는 배석자들(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과 함께 용산에 정시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로 올라온 이 대표를 환한 얼굴로 맞았다. 윤 대통령은 악수를 청한 뒤 왼손으로 이 대표 팔을 감싸안았다. 이 대표가 앉을 회담 테이블의 의자도 직접 빼줬다. 이 대표가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저와 이 대표님과 만나서 걸 우리 국민이 고대하셨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딱 여기까지였다. 이 대표는 곧바로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 대표는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5400자 분량의 발언이 담긴 A4 용지를 꺼내들었다.

비공개 회담 시작에 맞춰 퇴장하려던 기자단을 불러세운 그는 “제가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 대통령님 말씀 먼저 듣고 말씀드릴까 했는데”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물리쳤다. 이 대표는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이 걸렸다”며 윤을 때자 윤 대통령은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다. 이 대표는 이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원고를 15분간 읽어 내려갔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죠”라던 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론 관계자는 “대통령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평했다. 이 대표는 독재, 지배, 통치, 탄압, 편 가르기라는 거친 단어를 사용하며 “가족 등 주변 인사의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등 직설적 요구를 쏟아냈다. 각종 특검법 등 갈등 깊은 정책도 빼곡히 요구했다. 시선은 윤 대통령이 아닌 원고와 카메라를 번갈아 향했다.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자던 이 대표는 사실상 모든 의제를 깨웠다. 이 대표의 말에 윤 대통령은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저희끼리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라고 반응한 뒤 곧바로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회담은 예정 시간인 한 시간을 넘어 130분간 진행돼 4시10분쯤 끝났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가 길게 입장을 설명해서 대화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 답변 위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별도의 합의문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민생 문제에 대해 깊고 솔직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나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이 대표의 모두발언에 대해 “갑자기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되고, 이 대표가 과한 표현도 쓰시다보니 (윤 대통령이) 웃으실 수는 없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백태인 기자**

국민의힘 “이, 수용 못할 안전만 주장” 민주당 “윤, 변화 찾아볼 수 없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 회담에 대해 첫 소통이라는 점에서 모두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지만, 각론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다”며 이 대표가 꺼낸 의제를, 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

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고 출발점이었다”며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당에선 이 대표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제안한 안전을 두고 “수용할 수 없는 의제를 갖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는 날 선 목소리

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법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수용할 수 없는 안전들을 꺼낸 것은 결국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대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부터 “소통의 첫 장을 여는 데 의미를 뒤야겠다”면서도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성

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담에서는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어·야·정 협의체가 이뤄지려면 대통령이 열어놓고 임해야 하겠다는 자세가 있었어야 했는데 시급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을 사실상 빈손이라고 평가

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특별법 대표결과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앞서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민주당자·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5월 2일, 28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다. 5월 본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창훈·강보현 기자**

새 비대위장에 ‘어당팔’ 황우여... 여당, 안정 택했다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

국민의힘은 혁신보다 안정을 택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황우여(사진) 당 상임고문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 4·10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19일 만이다. 윤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5년 의원 출신의 황 상임고문은 당 대표를 지냈고 덕망과 인품을 갖추었으며 공정하게 정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박수로 만장일치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달 3일 이전에 황 상임고문의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6~7월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성격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상임고문도 이날 중앙일보에 “당의 명(命)이 있을 땐 받아들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만



두는 게 당직”이라며 “신중하게 잘해서 좋은 대표를 뽑고 물려주는 게 내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원으로 정치 경험과 식견을 갖춰 일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장 지명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나도 윤 대행의 총회 발언을 듣고 알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전·현직 중진이 잇따라 비대위원장 자리를 거부하자 윤 대행은 지난 26일 황 상임고문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황 상임고문은 “최근 발을 헛디뎈 복숭아빠에 금이 갔다”며 고사했지만, 윤 대행이 “죽을병 아닌 이상 말으셔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자 결국 수락했다고 한다. 판사 출신인 황 상임고문은 이회창 전 총재와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해 15~19대 국회의원을 내리 지냈다.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을 두루 지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1년 12월 ‘박근혜 비대위’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낼 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의 별명은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唐手·가라테)가 8단”이란 뜻의 ‘어당팔’이다. 그만큼 정치 고수란 의미로, 복잡한 갈등 국면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엔 ‘전당대회’를 개칭이란 험난한 산을 어떻게 넘느냐에 비대위의 성패가 걸린 상황이다. 이날 잠재적 당권 주자인 안철수의원은 “민심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 둘째)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황우여 상임고문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성룡 기자**

다”고 말했다. 황 상임고문은 “물 개정은 비대위가 아닌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인사들 사이에선 당원 100% 비중인 대표 선출 투표에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어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 일각에선 “혁신을 포기한 올드보

이의 귀환”(영남 중진)이란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어떤 혁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당에 변화와 혁신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김기정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럽턴 싱글홈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의대증원안 오늘 제출... 국립대 원안 '감축' 사립대 '유지'

국립대 7곳은 원안의 절반 증원
사립대 14곳은 정부안대로 늘려

전국의 대학이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총 2000명)를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50~100%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한 데 대한 각 대학의 최종 결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40개 의대 가운데 29일까지 대교협에 증원 규모를 제출한 곳은 정원을 늘리기로 한 32개 의대 중 20여 곳이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중앙일보가 취재한 국립대 7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은 원안의 절반을 증원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원안 증원 규모는 총 656명이었는데, 329명만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립대 14곳은 정부가 배정한 정원의 100%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천대·가톨릭관



29일 전북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이 가운을 벗어놓고 있다. [연합뉴스]

동대·건국대 글로벌캠퍼스·건양대·고신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아대·연세대 미래캠퍼스·인제대·인하대·영남대·조선대·한림대 등이다. 울산대는 원안의 75%인 6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고, 성균관대는 의대와 논의 끝에 원안 80명에서 10명을 줄인 70명으로 조정

했다. 이들 대학의 증원 규모는 총 719명이다.

원안의 100%를 증원하기로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의사들은 여전히 증원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상황인데, (대학이) 몇 퍼센트든 인원을 줄이는 게 의미가 있겠냐"며 "의·정이 합의하기 전까

지는 원안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거나 결정하지 않은 나머지 9곳(국립대 2곳, 사립대 7곳)도 국립대 50%, 사립대 100%의 증원 패턴을 따른다면 대교협에 제출될 32개 의대의 증원 규모는 총 1569명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이 입장을 최종 확정하지 않아 실제 증원 규모는 이와 달라질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들이) 학내에서 여러 상황이 있지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학이 30일 변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은 대부분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심 기획관은 "29일 기준 의대 40곳 중 38곳이 수업을 재개했으며 나머지 2곳은 5월에 재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고 아직 허가한 대학도 보고된 바 없다"며 "대학 본부 차원의 교수 사직서를 수리

의대 정원, 실제 얼마나 제출했나

단위: 명

4월 29일 기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한 23곳 대상

대학명	현 정원	추가 배정	실제 제출
경북대	110	90	45(-45)
경상국립대	76	124	62(-62)
전북대	142	58	29(-29)
충남대	49	151	76(-75)
충남대	110	90	45(-45)
제주대	40	60	30(-30)
강원대	49	83	42(-41)
울산대	40	80	60(-20)
조선대	125	25	25(원안 유지)
가천대	40	90	90(원안 유지)
인하대	49	71	71(원안 유지)
계명대	76	44	44(원안 유지)
영남대	76	44	44(원안 유지)
연세대 분교	93	7	7(원안 유지)
한림대	76	24	24(원안 유지)
가톨릭관동대	49	51	51(원안 유지)
인제대	93	7	7(원안 유지)
고신대	76	24	24(원안 유지)
동아대	49	51	51(원안 유지)
건국대 분교	40	60	60(원안 유지)
건양대	49	51	51(원안 유지)
대구가톨릭대	40	40	40(원안 유지)
성균관대	40	80	70(-10)

한 대학도 현재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

서울대·세브란스병원 오늘 휴진...환자들 "진짜 진료 못 만나" 혼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 등 서울 주요 대형 병원이 30일 예고대로 휴진에 나선다. 하지만 같은 병원이라도 교수와 진료과마다 상황이 달라 환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전날 오전 서울대병원은 평소처럼 환자들로 붐볐다. "김해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왔다"는 권모(54)씨는 "수술 경과가 좋아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사직·휴진 소식에 불안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세브란스병원, 백혈병 딸(2)의 항암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사

흘씩 암병원에 온다는 박모(43)씨는 "열이 나면 위험해 입원해야 한다. 급한 처치는 될 거라고 믿지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자궁근종 환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30일에 진료가 예약돼 있었는데 연기하러더라. 그 날짜도 한 번 연기한 것인데, 단체 문자로 (연락이) 와 대표전화로 전화해 일정을 다시 조정했다. 당황스러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항암 일정이 잡혀 있다는 한 환자는 "아직 병원에서 연락이 없다"며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진 않을까 전전

긍긍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수 자율로 쉬는 것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30일에 쉬는 교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대로 휴진 참여가 많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암 환자의 항암제 맞는 일정 때문에 휴진이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우려만큼 큰 공백은 없을 거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걱정할 수준의 혼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교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워도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화 와 설득을 통해 환자 곁을 지켜주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보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근책"도 내놔서. 기존에는 심장혈관 중재술(스텐트삽입술) 때 혈관 2개까지만 인정했던 수가(의료 행위 대가)를 앞으로는 4개까지 준다. 수가도 130%에서 270%까지 2배 이상 올린다. 또 일반 시술보다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응급 시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채혜선·문상혁·남수현 기자

조태열, 내달 방중 추진... 한·중 소통 재개 주목

(외교부 장관)

올해 3~4월 정치 '빅 이벤트'를 마친 한·중이 부쩍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 다음 달 초·중순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한 달 새 장관급·정상급 대면 소통이 연이어 재개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냉랭하던 한·중 분위기는 지난 3월 중국의 양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마무리되고, 지난 10일 한국 총선이 끝나면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조 장관의 방중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상회의가 열리면 3국 외교장관이 만날 텐데, 직전에 조 장관의 방중이 논의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2월 첫

통화에서 조 장관을 초청했다. 당시 조 장관은 "외교 채널로 협의하자"고 화답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급진전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11월 부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 고위급 소통 채널을 열어 한국의 변화를 설득할 발판을 마련하자는 판단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되더라도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 전에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최대한 관계를 관리해 놓겠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한국 정부도 총선 후 민생이 화두가 된 만큼 경제를 고리로 중국을 끌어당길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2일 하오펑(郝鵬) 라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하자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장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그와 만났다. 면담마다 방중은 경제안보와 기업 환경 개선이었다. 다만 한·중 사이를 갈라놓은 대만과 북한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이견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는 한 관

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한국 총선 직후 일단은 '관계 관리' 모드에 들어갔지만 국정 동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 한국을 향한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강화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도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 관리, 한·미·일 협력 강화 견제 등의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기 힘들지만, 양국 관계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에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응급환자 Emergency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서현역 흥기 난동 유족 “구조금 받으면 감형될까 두려워”

(범죄피해)

범인 최원종, 1심 무기징역 받고 항소 유족들 “사회와 격리 필요” 수령 거부

서현역 차량 돌진·흥기 난동 살인 사건의 유족들이 범죄피해구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원종(23)의 감형을 우려해서다.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메모리얼파크 고 김혜빈(사망 당시 20세) 씨 봉안당 앞에서 만난 김씨 어머니는 “유족이 구조금을 받으면 살인범 형량이 깎일 수도 있다는 판결을 봤다”며 “구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원종이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구조금 신청을 확 확정 전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진 고 이희남(사망 당시 65세)씨 유족도 최원종 형

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안내에 범죄피해구조금 대신 자체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한 상태다.

고 혜빈씨는 지난해 8월 3일 서현역 AK플라자 앞에서 최원종이 몰던 경차에 치여 치료를 받다 사건 발생 25일 만에 숨졌다. 차량에 치여 사흘 만에 숨진 고 이희남씨의 사위 양모씨도 “피의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으니 구조금 수령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항소해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 김민기·김종우·박광서)가 심리 중이다. 지난 24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범에게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30년간 치료 감호(교도소 대신 입원치료)를 받고 출소할 예가 있다. 최원종 피고인도 중증 조현병에 심신 상실 상태였다”며 “보험사를 통해 일부 피해를 보전하며 금액을 지급한 내역도 참고자료로 제출한다”고 했다.

첫 공판 직후 피고인 측이 부상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근거 자료를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하자 유족들은 더욱 분개했다. 고 혜빈씨 아버지는 “사형 선고가 안 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았을 경우 법원이 이를 피고인 형량 감경 요소로 판단한 사건은 실제 있었다.

지난 1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흥기 살해한 A씨 사건에서 유족에게 구조금이 4200만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다.

학계는 피고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의 피해회복을 감경 요소로 삼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현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유럽 국가들처럼 형사 재판에선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을 감경 요소에서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손승배 기자



1분기 외국인 관광객 340만, 팬데믹 후 최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40만3000여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뉴스1]

질병청 “2030년 말라리아 없는 한국... 무증상 조기진단 체계 구축”

WHO ‘우선퇴치 대상 국가’로 지정

정부가 2030년까지 말라리아를 완전 퇴치를 선언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말라리아 우선 퇴치 대상 국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말라리아 환자 ‘제로(0)’ 달성을 위해 퇴치 단계로의 정책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목표는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의 완전 퇴치다.

이번 2차 재퇴치 계획은 ▶환자 감시·위험관리 강화 ▶매개 모기 감시·방제 강화 ▶협력과 소통체계 활성화 ▶말라리아 퇴치 기반 구축 등 4개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말라리아 환자는 1970년 약 1만6000명이었다가 1979년 ‘퇴치’ 수준으로 줄었고, 이후 13년간 없었다. 그런데 1993년 경기 파주의 군부대에서 환자 1명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현재는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연간 500명 내외의 환자가 나온

다. 지난해에는 2011년 이후 처음 환자 수 700명(국내 673명·해외 74명)을 넘어섰다. 이번 2차 재퇴치 계획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말라리아 환자 찾기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선제적으로 무증상 감염사례를 확인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모기와 환자 간 전파 고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내 환자는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데, 원충이 간에 잠복하다 보니 모기에 물린 후 몇 달 또는 몇 년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병청은 말라리아 유행 시기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을 찾는 발열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진단키트로 검사하고,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동노출자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 지역 사회 전파 차단 및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정 감염지역 및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잠복기 환자의 감염을 진단할 수 있도록 혈액 검사법을 보완하는 한편, 매개 모기 감시를 위한 조사 지점을 50곳에서 8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상혁 기자

돌아온 보화각, 간송의 초심 찾았다

(간송미술관의 옛 이름)

간송미술관, 내일부터 재개관 전시

1938년 중일전쟁의 파란 속에 간송 전형필(1906~1962)은 국내 1세대 건축가 박길룡(1898~1943)에게 서울 성북동 북단장에 지을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옛 이름)과 부속 가족 설계를 의뢰했다. 언젠가 해방이 되면 신윤복의 ‘해원전신첩’(국보) 등 각종 수장품을 공개 전시한다는 바람이 있었다. 반원형 돌출 구조에 비대칭 구성이 두드러진 보화각은 당대 최신 양

식인 바우하우스풍 흰색 건물이었다. 꼼꼼한 기록광이었던 간송은 설계 의뢰시점부터 준공까지 공사 대금과 임금, 잡비 등 내역을 일종의 가계부인 『일기대장』에 남겼다. 박길룡건축사무소가 그린 설계도면도 받아서 보관했다. 별개로 남긴 지불명세서엔 보화각 등 설계감독비가 1500원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기왓집 한채값이 1000원 할 때다. 이들 문서는 보화각 수장고 한쪽에 잠들어 있다가 86년 만에 모습을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인 노수현의 ‘추협고촌(秋峽孤村)’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뉴스1]

드러났다. 간송미술관이 다음달 1일부터 여는 ‘보화각 1938: 간송미술관 재개관전’(6월16일까지)을 통해서다.

29일 간송미술관은 언론공개회에서 “보화각 보수를 위해 모든 유물·자재를 신속 수장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유물이 상당수 나왔다”며 “간송 컬렉션의 초기 형성과정을 연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길룡의 설계도면은 오랫동안 접혀 있었고 뒷면은 누렇게 변했지만 보존처리를 거쳐 공개된 청사진 자체는 또렷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국내 첫 개인(사설)박물관으로 이어진 보화각은 2019년 12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국비·시비를 합쳐 총 23억원을 지원받는데 힘입어 2022년 4월 ‘보화수보’(寶華修補)전 이후 1년 7개월 간 보수·복

원 공사를 했다. 최신 전시·조명 설비와 편의시설을 보완했고 2층에 위치한 간송의 서재·온실도 과거 모습으로 살려냈다.

간송이 1938년 전에 구입한 서화류 수십점도 처음 선보인다. 각각 ‘남나비’와 ‘고정(高蝶)’이라고 불렀던 조선 후기의 유명한 나비 그림 화가 남계우(1811~1888)와 고진송(1822~?)의 작품이 2층 전시실에 나란히 놓였다. 기록으로만 전해진 고진송의 나비 그림이 실물로 발견된 건 처음이다.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작으로 당선된 노수현(1899~1978)의 ‘추협고촌(秋峽孤村)’도 처음 공개됐다.

강혜련 문화선임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체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시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펀리 지역]

“철저히 외면당한 보수 정당, 존재해야 하는 거 맞나”

국민의힘 총선 낙선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당 지도부에서 친윤, 영남을 제외하라고 공개적으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당원 100% 투표인 현행 당 대표 선거방식도 당원 50%, 국민 50%로 바꾸라고 한다. 다음 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단체로 광주를 방문한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누구보다 “이대로 가다간 보수 정당이 궤멸한다”는 바닥민심을 몸으로 체감한 이들이다. 물론 근처에는 “수도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또 영남 당선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영남 자민련’에 안주하려 한다”는 불만도 깔려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경제수석이든 경제관료든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 대과, 양팍값이 올라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김중혁 조직부총장)며 날을 세운다. 낙선자 164명의 집단 세력화는 앞으로 무시 못할 힘이다. 같은 맥락에서 차기 당 대표를 원외 수도권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윤희숙 전 의원이다.



윤희숙 전 의원은 지난 25일 경제사회연구원에서의 인터뷰에서 “보수 정치세력은 지금 ‘진실의 순간’에 맞닥뜨려 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고 강조했다. 김중호 기자

쓰러진 원인 밝히고 일어서야 하는데, 쓰러진 적 없다고 우겨 체질 개선 없이는 국힘 생존 어려워, 그래도 보수의 미래 믿어 이재명식 25만원은 황당, 다만 보수도 고통 위로하고 나눠야

철저하게 바뀌어야 한다. 말로만 변하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제 믿어주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였다.

“결국은 연고주의·집단주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수도권·청정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했다. 그들의 마음을 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상식·공정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은 지난 10여년 동안 권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최근 2년이 그랬다. 그래서 수도권 유권자의 신뢰를 잃었다. 둘째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처절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가장 적대적인 유권자들은 바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다. 무서울 정도로 적대적이었다.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정치 세력을 자처하면서 이들에게 신뢰를 못 받았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시효를 다 한 지난 70년의 성장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우리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게 구조개혁이었다. 그런데 지난 2년 정말 전력을 다 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여소야대 국면이라도 계속 제기하고, 노력하고, 또 추구했어야 했다.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

을 국민에게 보이지 못했다.”

-왜 못했나.

“입으로만 얘기한 건지, 마음으로부터 생각한 건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입으로만 얘기했던 거면 우리 보수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전혀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든지 해야지, 기존 보수로는 안 된다. 보수 세력은 지금 진실의 순간에 맞닥뜨려 있다.”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건가.

“총선이 끝난 뒤 정말 며칠을 고민하며 ‘이제 한국에 보수는 없는 것인가’ 고민했다. 하지만 우리 보수가 마음이 꺾이면 안 된다는 결론과 자신감을 얻었다.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첫째, 국가와 국민을 보다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세력이다. 민주당 정권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들은 국민을 더 살게 할 욕망도 역량도 없다. 둘째, 국가와 개인의 자율성을 철저히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사회의 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 수호하는 것도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셋째,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은 보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 지도부, 중진, 초선할 것 없이 총선 결과에 편안함을 느끼면 안 된다. 생각만 바뀌서 될 게 아니고 지도부 구성, 자원과 역량도 수도권에 쏟아야 한다. 낙선자들이 1년간 매달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턱도 없다. 현수막 비용에 불과하다. 방지하면 4년 후에도, 그 뒤에도 결과는 참패일 것이다.”

허술했던 선거 대응

-총선을 잠시 복기해보자. 대응의 측면에서 당이 잘못됐던 게 뭐였나.

“이중섭 대사→황상무 수석→대과 가격 파동’이 총선 전에 갖고 있던 보수 세력에 대한 불만을 완전히 상기시켰다. 사람에게 더 빨리 정리하고, 사안에 대해서 더 제대로 설명을 해야 했다. 이중섭 대사를 부임 열흘 만에 귀국시키면서 당에선 ‘이제 악재가 해결됐다’고 했다. 난 어마어마한 괴리를 느꼈다. 하루라도 빨리 자진 사퇴시켜야 될 것을 왜 이렇게 둔감한가 싶었다. 이런 당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결심 없이는 이 당은 생존이 어렵다. 연고주의에 기대 다음에도 45% 얻어 그냥 끌려가는 정당으로 남아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게 과연 생존일까.”

-그때 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모두 대통령을 의식한 건가.

“그 이전에 수도권 민심에 대한 ‘더듬이’가 없거나 약했다. 당 전체가 수도권 유권자들의 민심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적자생존 아닌 따뜻한 보수 지향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아이디어는 어떤가.

“넉넉하신 분들은 받아도 별 도움도 안 되면서 재정으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된다. 미래의 빛을 그냥 선심성으로 쓰는 것이냐.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표가 그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귀에 쫓힌 이유다. 뭔가 우리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을, 국가를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내보였어야 했는데, 그에 둔감했고 공을 덜 들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나.

“예컨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지금 농산물 가격이 이러저러해서 급등했습니다.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에게 타격이 갑니다. 수입까지는 준비가 될 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어느 정도 틀어막겠습니다. 대과 한단 가격 4000원까지 갔는데, 하나마트에서 1000원까지 내려간 것 모두 재정으로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오래가면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이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어야 했다.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면서 선심성으로 가는 건 반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도움은 보수에서도 필요하다. 시장원리를 적자생존의 논리로 잘못 이해해서 안 된다. 사회의 응집을 위해서 따뜻한 것을 서로 나눠야 한다.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은 당이 개입하지 말아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반성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도 하고 타협도 해야 하지만, 그 누구건 개인의 사법적 리스크나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당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처럼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이 하나의 ‘로펌’이 돼선 곤란하지 않나. (김 여사 문제는) 대통령실과 야당이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수 위기의 상황에서 정치인 윤희숙은 지금 뭘 어떻게 할 건가.

“당이 깨어나고 바뀌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생각이다.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라는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를 바탕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되자는 것이다. 누구를 봐주고, 상식 밖의 판단을 하고, 연고주의, 줄서기, 무사안일에 빠져 국민과 멀어지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김현기 논설위원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우리말 바꾸기

‘짜그리’와 ‘깡그리’

‘몽땅’ ‘하나도 남김없이’ 등을 나타낼 때 “그 문제는 내가 짜그리 다 해결할게” 등에서와 같이 ‘짜그리’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이와 비슷하게 “어떻게 그걸 깡그리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에서처럼 ‘깡그리’라고 쓰기도 한다.

그런데 ‘짜그리’와 ‘깡그리’ 중 하나는 표준어이고 하나는 사투리라고 하면,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인지 골라내기 쉽지 않다.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깡그리’가 표준어, ‘짜그리’는 사투리다. ‘짜그리’는 전남 지역에서 ‘깡그리’의 방언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따라서 ‘짜그리’는 ‘깡그리’라고 고쳐 써야 바른 표현이 된다.

‘깡그리’와 비슷한 의미로 ‘송두리’가 있다. ‘송두리’는 ‘있는 것의 전부’를 의미하는 명사인데, 이를 ‘모조리’를 뜻하는 부사로 만들 때 ‘송두리째’라고 써야 할지, ‘송두리채’라고 써야 할지 헷갈린다는 이가 많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는 ‘-째’다. 그러므로 ‘송두리채’가 아닌 ‘송두리째’라고 써야 한다.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웃을 입을 채로 물에 들어갔다” “노루를 산 채로 잡았다” 등에서와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사랑해, 내친구 게일”



엘리스 박
은퇴 간호사

“게일! 게일!”

부르짖는 내 목소리에 그녀는 눈을 떠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결국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그녀는 하늘나라로 떠나갔다. 내 일생에서 가장 귀한 친구를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게일을 선택할 것이다. 게일은 나의 친구이자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특별한 것이었다. 그녀와 나는 신앙이 같다는 이유로 대화가 통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게일은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걱정하는 나의 말을 들어 주었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주던 친구였다.

병세가 위중해진 아버지를 뺏기 위해 한국 방문을 계획할 때였다. 그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국에 가라고 했다면서, 동행을 제안했다. 물론 본인의 여행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흑인인 그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러 가는 것”이라는 게일의 말에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아버지께 연락을 했더니 “나야 와주면 고맙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국에 갔다. 그녀는 폐암으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아파할 때마다 아버지 방으로 가 환부에 손을 얹고 정성으로 기도했다. 아버지도 게일을 무척 좋아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녀가 신은 양말에 구멍이 난 것을 보셨는지 새 양말도 꺼내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며 무척 예뻐하셨다. 그녀의 사랑에 감동하신 아버지는 그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셨다.

하지만 한 달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게일과 나는 함께 한국을 다녀온 후 더 가까워져 그녀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는 등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다.

어느 날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게일의 이름을 대면서 빨리 병원으로 와 달라는 전화였다. 나는 남편과 함께 그녀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다. 게일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었다.

그녀는 혼수상태였음에도 내 목소리를 듣고는 눈을 떠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마지막 인사 한마디 나눠보지 못하고 게일은 삼 일 만에 하늘나라로 이사를 했다. 그녀가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알았지만 심장병까지 앓고 있는 것은 몰랐다. 그녀가 떠난 후 그녀의 아들과 병원 동료들 몇 명이 함께 그녀의 유품 정리를 도와주다 발견한 병원 진료 카드를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지나칠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다. 그녀가 사용했던 침대는 누가 버린 낡은 소파 쿠션 3개를 붙여놓은 것이었다. 옷장에도 내가 선물로 준 옷 몇 벌과 유니폼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번 돈을 본인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대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 홀리스들을 위해 모두 사용했다. 홀리스들에게 음식도 만

들어 주고 재봉도 가르쳐 주는 등 본인이 소유한 물질과 시간을 모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다. 그녀는 봉사하는 삶을 직접 실천으로 보여준 성경에 나오는 ‘도르가’와 같은 귀한 여인이었다.

아들 외에는 유가족이 없는 그녀를 위해 근무하던 병원에서 조촐하게 장례식을 치렀다. 동료들과 함께 그녀를 추모했다. 게일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 추모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는 소중한 가족 한 사람을 잃은 것 같은 슬픔과,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며 선행과 나눔을 실천했던 그녀의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베풀었던 선행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성경 다니엘서 12:3 절을 천천히 읽어주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녀에게 전해 주고 싶었던 마지막 인사였고 소원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 주셨던 천사였다. 나는 그녀가 천국에서 나의 아버지와 반가운 재회를 나누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때때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또 마음이 힘들고 울적할 때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녀를 불러본다.

그녀가 언제나 그랬듯이 다정하게 웃으며, 또 다시 나에게 말한다. “엘리스, 너는 참 바보 같아 (Alice, you are so silly...)”

사랑해, 그리고 보고 싶다, 잊지 못할 나의 영원한 친구 게일.

엘리스 박씨는 LA폭동 당시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 통역 등 봉사 활동을 했으며, 아태가정상담소에서 활동했다. LA폭동 32주년을 맞아 절친했던 흑인 친구를 추모하며 쓴 글이다.

디지털 세상 읽기

AI 전투기 조종사가 온다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국(DARPA)은 최근 AI가 조종하도록 개조된 F-16 전투기가 인간 조종사가 모는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이는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로 전투용 드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지만, 도그파이트(dogfight)라 불리는 공중전은 아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 항공기가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대결에서는 AI가 인간 조종사를 이긴다는 결과가 이미 2020년에 나왔다.

이번 테스트는 물리적인 비행에서도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고, 개조한 AI 전투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인간 조종사 두 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실제 조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간과 AI 조종사 중 어느 쪽이 공중전에서 승리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다음 단계는 아예 인간을 태우지 않는 AI 전용 전투기의 개발이고, 이는 이미 진행 중이다. 전투기를 인간이 조종할 경우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탑승한

인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가 전투기 성능 발휘의 한계점이 된다. 따라서 AI 조종사는 그런 제한 없이 전투기의 성능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준다.

게다가 군의 관점에서는 전투기 조종사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더 있다. 미군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은 중요한 전쟁 역지력으로 존재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일단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만약 이들이 실제 전투에서 격추될 경우 구출하는 작전에도 큰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은 앞으로 인간 조종사가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대신, 이들에게 여러 대의 드론 전투기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기는 쪽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BED BUG

빈대퇴치! ELIMINATE!

more ▶ 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skpmva@gmail.com

무료 견적

571-992-5789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채용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윈더플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5월 그리스&터키 *산토리니 옵션
지중해의 핵심 두 나라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

10박11일 5/6~5/16 \$2,890+항공

5월 스페인&포르투갈 마감 임박
10박11일 5/7~5/17 \$3,190+항공

5월 파노라마 서유럽 여행 상품
정통 서유럽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더했습니다.

12박13일 5/21~6/2 \$3,890+항공

6월 스위스 알프스 마감 임박
자연이 만든 웅장한 알프스와 환상적인 자연을 품고 있는 스위스 일주

8박9일 6/18~6/26 \$3,990+항공

6월 북유럽 4개국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들로 구성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0박11일 6/28~7/8 \$5,290+항공

6월 캐나다 록키 \$2,290 (항공포함)
5박6일 6/30~7/5 (독립기념일 특선) 마감
8/14~8/19 (여름방학 특선)

8월 알래스카 일주
마타누스카빙하, 콜럼비아대빙하, 액티트 빙하 모두 볼 수 있는 기회!

6박7일 8/15~8/21 \$2,990 (항공포함)

9월 영국일주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

11박12일 9/2~9/13 \$5,890+항공

9월 정통 서유럽 \$3,490+항공
10박11일 9/10~9/20 마감 임박
10/9~10/19 마감 임박

윈더플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고 윤태웅

이달의 추천투어
4월말까지 디파짓시 \$100/인 off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9/18~10/1 \$4390+항공

그리스 & 터키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9/25~10/5 \$2,890+항공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9일	\$3990+항공
6/18~6/28	고공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 (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 (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990 (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 (항공포함) 발코니 \$2590 (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9/18~9/26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9/24~10/4	고공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10/14~10/25	오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10/15~10/25	고공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 (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교외)	8박9일 \$1990+항공
10/22~11/01	고공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11/12~11/25	아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 (인사이드)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 (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고공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1차 4/16~4/26
2차 6/18~6/28
3차 9/24~10/4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특선

- 위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모든 옵션 포함
-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안원마을 라안호텔 / 여수 소노캣 / 거제 소노캣
부산 크린드호텔 / 제주 라안호텔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4일 대만 \$499+항공
3박4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 (기본검진)
한국국민 \$700 / 여 \$750
미국국민 \$910 / 여 \$975

경희대병원 (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 (기본검진)
남/여 \$1000 / 여 \$1130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460

메모리얼 데이 특선

천성, 몬트리올
퀘벡, 레이크조지

3박4일 5/24~5/27 \$899

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3일 5/25~5/27 \$650

롱우드 가든

당일투어 5/25 \$159

뉴욕 특선

1박2일 5/26~5/27 \$450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성/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5박6일 \$1350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6/24, 7/22, 8/5

뉴욕·천성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4일 \$899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7/8, 9/23, 10/21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9일 \$1450+항공 **일출발**

성극 다니엘

\$199

5/16, 5/30,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뉴욕 동부 명도 해관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3일 \$650 **일출발**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1박2일 \$399

캠버랜드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5박6일 \$990+항공 매주 수

샌프란시스코

3박4일 \$950+항공 **일출발**

옐로스톤

3박4일 \$95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일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April 30,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3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주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시 악용한 가짜 음란 사진 늘지만 단속 어려워

교육 현장 답페이크 논란
일어나고 있는 폐해가 교육 당국의 골머리 아프게 하고 있다. 시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이용해서 말도 안되는 가짜 이미지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USA투데이가 폭로한 사건의 실태를 알아본다.

일리노이 10학년 2명 처벌
베버리힐스 8학년 5명 퇴학
마이애미 중학생 2명도 체포

몇 주 전 일리노이주 소재 한 고교 복도에 서있던 15세 여학생은 10학년 동급생 중 한 명이 인공 지능(AI)을 이용하여 자신의 누드 사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와 다른 10대 여학생들의 조작된 이미지 수십 개가 온라인을 떠돌고 있다고 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더군다나 일부 사진은 교사를 묘사하기도 했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 학교 교장이 그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여학생은 피해자 목록에 있는 22번째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의 어머니는 이 매체의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매우 속상했다”며 “하지만 둘 다 상황에 대해 매우 화가 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종류의 분노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많은 부모, 특히 어린 여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의 분개로 이어지고 있다. AI가 미국 경제와 문화에서 더욱 강력하게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학교 당국자들도 AI가 학교에 침투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교장이 학부모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초기 기술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는 3월 15일 메시지에서 “최근 사건을 되돌아보면 기술과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

세상 문물에는 항상 명과 암이 있게 마련인데 최근 AI로 인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폐해가 교육 당국의 골머리 아프게 하고 있다. 시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이용해서 말도 안되는 가짜 이미지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USA투데이가 폭로한 사건의 실태를 알아본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에 대한 플레이백은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플레이백이라는 것은 필요한 규칙·대응법·목표 등 포괄적인 것인데 다시 말해서 처음 있는 일여서 대처법이나 대응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장과 학부모는 교육구 정책과 주법을 뒤섞어 헤쳐 나가야 하며, 그 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USA투데이가 입수한 영장에 따르면 지난 12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중학생 2명이 체포됐다. 적어도 지금까지 다른 주와 교육구에서는 그 결과가 될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당국이 비슷한 악몽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AI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주의 기술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언론 자유 변호사 케이트 루안(Kate Ruane)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두더지 잡기 게임보다 훨씬 더 나은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예방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마이애미에서 중학생 체포
지난 12월에는 마이애미의 한 차터 스쿨에 다니던 중학생 2명이 AI 앱을 이용해 12-13세 동급생의 누드 사진을 만든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의 무단 홍보’를 금지하는 플로리다 주법을 인용하며 중학생들을 3급 중범죄로 기소했다. 텍사스와 버지니아를 포함한 광



시 악용한 가짜 사진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견돼 처벌을 받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빙·난방 copilot생성)

은 주에서는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동의 없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소위 ‘답페이크 법’을 시행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주의회가 그러한 규칙을 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이자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법률 전문가인 메리 앤 프랭크스(Mary Anne Franks)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법령은 특히 가혹하다. 특히 프랭크스에 따르면 마이애미 중학생 사건은 너무 과한 처벌의 한 사례였다.

◆베버리힐스 학생들, 답페이크 스캔들
몇 달 후, 비슷한 스캔들이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스에 있는 중학교를 강타했다. CBS LA 뉴스와 베버리힐스 통합 교육구 성명에 따르면 지난 2월 베버리힐스 중학교의 8학년 학생 5명이 AI를 사용해 다른 8학년 학생 16명의 얼굴을 누드 사진에 합성하는 데 참여했다. 베버리힐스 경찰국 대변인에 따르면

,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돼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6일, 베버리힐스 통합교육구 이사회는 관련된 8학년 학생 5명을 퇴학시키는 처벌을 승인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으며 실수도 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책임은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피해자 어머니가 말하는 ‘미지의 영역’에 있는 학교
일리노이주 고교의 여학생 사건의 경우 사진을 유포한 학생은 자신의 학교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고 여학생의 어머니는 밝혔다. 그는 학교 당국은 다른 학생이 이런 사실을 학교 측에 보고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병희 기자
▶ 4면 ‘답페이크’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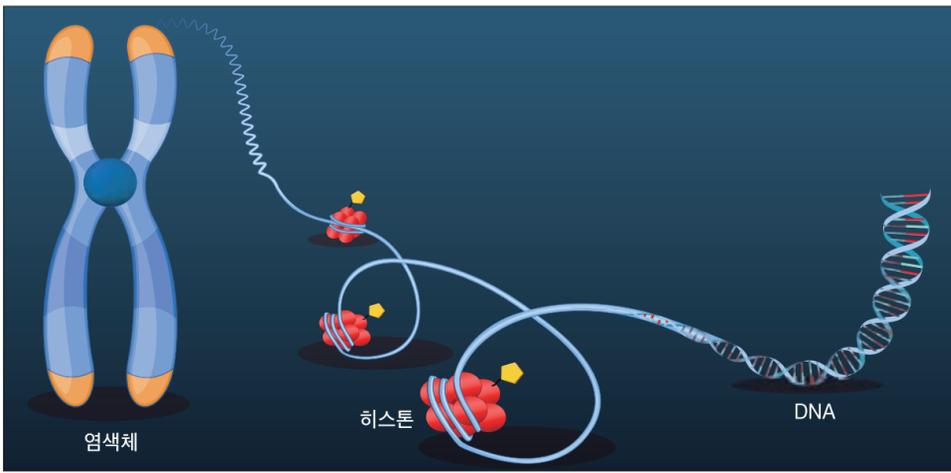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춘 길건너편)
E-mail : lee@jaelaw.com

가혹한 환경은 유전자에 흉터를 남긴다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구성된다. 이때 이들에 여러 표지가 붙어 유전자의 발현과 억제를 조정하는 것을 후성유전학이라 하며, 이는 환경요인에 의해 조절된다.

전통적 유전학에서는 유전자의 존재 유무를 중시했다. 장미는 흰색에서 분홍·노랑·주황·빨강까지 온갖 색을 뽐내지만, 자연에서 파란 장미는 없다. 그 이유는 장미종을 통틀어 그 어떤 장미도 파란 색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의 정보를 담은 단백질이 만들어 발현시키지만, 그 유전자가 없거나 고장 나면 이를 만들지 못한다. 유전자 치료의 개념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특정한 유전자 정보가 누락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외부에서 이를 보충해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유전자를 단지 존재 유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 이해하려면 곧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피아노의 건반이 몇 개 빠지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있는 건반을 다 누른다고 음악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약 200여 종이나 되지만, 모든 세포들은 단 한 개의 수정란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유전정보를 품고 있다. 즉, 인간 세포라면 모두 세포핵 내부에 약 2만 종의 유전자가 든 동일한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정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표현형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택적 발현이 필요하다. 즉, 어떤 세포가 근육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전자 세트 중에서 근육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을 골라서 발현시키고 나머지는 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나 다세포 생명체에서는 유전자의 선택적 발현과 억제는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폐를 구성하는 폐포가 손톱처럼 케라틴을 합성한다든지, 각

학계 주목 받는 후성유전학 연구 유전자가 모든 것 결정하지 않아 같은 유전자라도 다르게 발현돼 환경에 따라 유전자가 변하기도

막 세포가 뼈세포처럼 골기질을 분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유전자 ON-OFF 스위치

따라서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적절히 선별해 발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유전자의 선별적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DNA의 메틸화(methylation)와 DNA와 결합된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acetylation)이다.

DNA의 메틸화란 DNA를 구성하는 네 종류의 염기 중 시토신과 구아닌이 연달아 나타나는 부위에 메틸기(CH₃)를 붙이는 것이고, 히스톤 아세틸화란 히스톤 단백질을 구성하는 라이신에 아세틸기(CH₃CO)를 붙이는 것이다. DNA에 달라붙은 메틸기는 OFF 스위치처럼 작동해 유전자의 발현을 막고, 히스톤에 붙은 단백질은 ON 스위치가 되어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각각의 세포들은 특성에 맞게 DNA 메틸화와 히스톤 아세틸화를 적절히 사용해 자신에게 꼭 맞는 형태로 살아간다. 이 밖에도 마이크로 RNA의 생성, 히스톤 단백질 메틸화 등 다양한 유전자 조절 스위치가 존재해 각각의 세포들은 각자 입장에 맞는 '적절한' 세포로 다듬어진다. 유전자

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하는 스위치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이 스위치들이 얼마나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였다. 이 유전자 스위치의 변화를 촉발하는 건 환경적 요인이다. 그중 하나가 노화다. 나이가 들수록 평균적으로 DNA 메틸화가 줄어든다. DNA 메틸기는 유전자를 끄는 스위치이므로, 이들이 사라지면 이전에는 기능하지 않았던 유전자들이 깨어나는데, 이들 중에는 암 유전자도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밖에도 흡연·음주·약물·굶주림과 폭식, 각종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들은 유전자 조절 스위치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애초에 가진 유전자 자체의 이상이나 변화가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 패턴과 정도가 달라지며 나타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인 후성유전학(epigenetic)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후대로 이어지는 후성유전학적 변화

학자들이 후성유전학을 주목하는 건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당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통적 유전학에서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밝은 피부의 사람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피부세포의 멜라닌 합성 기능이 강화되어 피부색이 어두워지겠지만, 그것이 장차 태어날 자손의 피부색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대부분의 후성유전학적 표지들은 지워진다.

그러나 모든 후성유전학적 표지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임신한 암컷 쥐(1세대)를 굶기면 배속에서부터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새끼쥐(2세대)는

주별 가장 입학 어려운 대학

주명	대학명	합격률(%)	SAT중위범위
앨라배마	Spring Hill College	56	1000~1150
알래스카	U of Alaska Southeast	64	
애리조나	Ottawa Univ. Surprise	28	970~1080
아칸소	Lyon College	50	1030~1160
캘리포니아	Stanford	5	1420~1570
콜로라도	Colorado College	14	
커네티컷	Yale	7	1460~1580
델라웨어	Delaware State Univ.	39	810~1010
플로리다	U of South Florida SM	24	1160~1290
조지아	Emory Univ.	19	1380~1530
하와이	Brigham Young Hawaii	75	1060~1250
아이다호	The College of Idaho	48	1050~1240
일리노이	U of Chicago	7	1500~1570
인디애나	U of Notre Dame	19	1400~1550
아이오와	Grinnell College	19	1370~1540
캔사스	Sterling College Kansas	37	900~1080
켄터키	Alice Lloyd College	21	860~1000
루이지애나	Tulane Univ.	11	1340~1500
메인	Bowdoin College	9	1360~1510
메릴랜드	Johns Hopkins Univ.	11	1470~1560
매사추세츠	Harvard Univ.	5	1460~1580
미시건	U of Michigan Ann Arbor	26	1340~1520
미네소타	Carleton College	21	1330~1520
미시시피	Mississippi College	29	1140~1260
미주리	Washington U in S Louis	16	1480~1560
몬테나	U of Montana Western	52	890~1120
네브래스카	College of Saint Mary	50	
네바다	U of Nevada Las Vegas	81	1030~1250
뉴햄프셔	Dartmouth College	9	1440~1560
뉴저지	Princeton Univ.	6	1450~1570
뉴멕시코	Eastern New Mexico U.	51	950~1160
뉴욕	Columbia Univ.	7	1460~1570
노스캐롤라이나	Duke Univ.	8	1470~1570
노스다코타	Mayville State Univ.	53	880~1250
오하이오	Case Western Reserve	30	1340~1520
오克拉호마	U of Science & Arts of O	36	600~1200
오리건	Reed College	42	1320~1520
펜실베이니아	U of Pennsylvania	9	1460~1570
로드아일랜드	Brown Univ.	8	1440~1560
사우스캐롤라이나	Wofford College	53	1190~1350
사우스다코타	Dakota Wesleyan Univ	64	950~1110
테네시	Vanderbilt Univ.	12	1470~1570
텍사스	Rice Univ.	11	1460~1570
유타	Brigham Young Univ.	69	1200~1410
버몬트	Middlebury College	22	1340~1520
버지니아	U of Virginia	23	1320~1510
워싱턴	DigiPen Institute of Tech	38	1140~1340
웨스트버지니아	Appalachian Bible Colle.	46	1000~1110
위스콘신	U of Wisconsin Madison	57	1260~1460
와이오밍	U of Wyoming	94	1040~1240

최근 스탠퍼드에서 흥미로운 순위 발표했다. 각주마다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을 선정했다. 주별 학력 차이가 상당해서 고른 수준은 아니

다. 50개 주에 명문 대학들이 고루 퍼져 있지 않기에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각 주의 경제력과 일치해 눈길을 끈다.

DNA 메틸화에 변화가 나타나고, 이들은 이후에 먹을 것이 풍족한 상태에 놓였을 때 당노나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후성유전학적 각인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각인이 나타난 2세대 쥐들에게서 태어난 3세대 쥐들은 굶주림 상황에 놓인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조군 쥐들보다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후성유전학적 각인 중 일부는 대를 이어 전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일은 인간에게도 나타난다. 전쟁으로 인해 극도의 영양실조에 장

기간 노출되었던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은 최대 4세대까지 대사질환에 관련된 후성유전학적 각인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가혹한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는 유전자에 상흔을 남기고, 그 흉터가 지워지는데 몇 세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대처하기 힘든 유전자 돌연변이에 비해, 후성유전학적 각인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환경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은희 과학커뮤니케이터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장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커리어 확장을 꿈꾸는 직장인에게

“전 세계 미디어를 전담할 팀을 구급 본사에 신설해서 각국 팀들과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 지 정확히 2주 만에 팀이 만들어졌다. 그 자리에 관심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당연히 로이스(나의 영어 이름)가 와 야지!”라는 답이 왔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미국으로 날아왔다. 2019년 가을 일이다. 내가 미국 본사로 옮겨온 과정은 정말 극적이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직장인들의 커리어 확장에 대해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토요일 종일 이루어진 일정에도 수백명의 참가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내가 늘 받는 질문은 ‘구급 본사에 어떻게 가게 되었나?’다. 그러면 나의 본사 이동 스토리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거기에 꼭 덧붙이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있다. 글로벌 커리어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가지 면에서다.

첫째, 내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미리 미리 표명하라. 내가 가고 싶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나 매니저를 평소 주기적으로 만나 그 팀이 하는 일을 알아둔다. 그래야 내가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일을 잘하려면 어떤 자질과 능력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구글코리아에 있던 한 동료는 일본에 있는 광고정책팀이 한국으로 출장 오면 늘 미팅을 요청해 만났다. 그렇게 팀을 알아가고, 팀원들과 네트워크를 쌓으며 자신을 알렸다. 4년째 되던 해 그 팀에 자리가 생겼고, 그 자리에 지원했다.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당신이 그 팀 매니저라면 누구를 뽑겠는가? 지난 3~4년 꾸준히 그 일에 관심을 표명하던 후보를 당연히 더 신뢰하게 된다. 나의 경우도 ‘전격’ 발탁처럼 보였지만, 사실 평소 나의 아이디어를 한국

너머 세계의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본사 인사 담당자는 내 제안이 수년 동안의 인사 이트와 경험, 고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기에 내가 그 자리에 관심을 표명했을 때 바로 불렀던 것이다.

둘째, 언어다. 30년간 미국계 외국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어는 필수였다. 미국에서 MBA(경영 석사)를 마친 유학생 영어 수준을 가졌던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에 대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았다. 그런데 일을 할수록,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영어가 요구됐다. 부서장이 되니 옆 팀을 설득해 협조도 받고, 본사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해 예산도 따와야 한다. 영어를 잘하지 않고서는 일을 잘할 수 없었다. 전에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영어를 잘하지만 일 못하는 사람. 나머지는 영어는 좀 못하지만 일은 잘하는 사람. 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지금은 영어를 못하면서 일을 잘할 수가 없다.

물론 영어 공부라는 게 쉽지 않다. 꾸준히 중단 없이 하는 게 쉽지 않다. 매일 해도 해도 제자리 같다. 뒤늦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원어민처럼 허가 말랑말랑하게 잘 돌아가는 후배나 동료들과 비교하면 지금 해서 뭐가 되려나 씁쓸해지기기도 한다. 하지만, 상투적인 말 같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 가장 빠르다. 나는 마흔살에 영어를 소리공부(파닉스)부터 새로 시작했다. ‘apple’이 ‘에어~플’처럼 발음되고 studying은 ‘스타딩’이 아니라 ‘스타디~잉’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40년 동안 잘못 발음했던 것을 고쳐가는 일이 즐거웠다. 그렇게 10년을 매일매일 영어 공부에 시간을 쏟았다. 그리고 본사행 기회가 왔다. 10년 전에 시작한 영어 공부가 아니었다 라면 원어민들로 가득한 커뮤니케이션 팀 자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원할 엄두가 안났을 것이다. 물론 미국에 와서도 5년 동안 매일 원어민 튜터를 만나고, 영어 오디오북을 두시간씩 듣는 등 하루 서너 시간을 영어에 쏟았다.

물론 위 두 가지는 꼭 글로벌 커리어 확장을 위해서만 필요한 건 아니다. 어느 기업에 있든 다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글로벌 커리어 기회가 반드시 한국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 내에서도 기회가 많다. 요즘은 한국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의 서비스 및 제품들이 대부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점점 줄고 있다. 어떤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대형 회사에 인수되면서 하루아침에 미국 회사가 되는 바람에 영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경우도 봤다. 기회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준비하자. Cheers!

정경숙
전 구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왕따에... 학교 못 믿어 교실 밖 초등생 2만명

학업중단 초등생 5년간 18% 증가
지병·따돌림 등 영향 친구 수 줄고
코로나 거치며 ‘집콕’ 생활 굳어져
“학교 밖 아이들 위한 예산 늘려야”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A양(13)은 2년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1교시 수업만 듣고 조퇴해 홈스쿨링을 했다. 전식이 심한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끼고 등교하는 날이 이어진 탓이다. 하지만 “4학년이 되자 학교 가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게 A양 어머니 얘기다. “학교 아이들끼리 무리가 만들어져 끼어들기도 어려울 것 같고,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버렸다”는 이유다. 현재 A양은 이달 치러질 초등학교 검정고시와 8월 중학교 검정고시를 동시에 준비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B양(16)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때때로 코로나19까지 터지며 새 친구를 사귀지도 못한 채 학교 밖으로 밀려났다. B양의 어머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라도 보내려고 아예 근처로 이사했는데, 프로그램이 대부분 17~18세 청소년을 위한 직업 체험 행사들뿐”이라며 아쉬워했다.

의무교육 밖으로 밀려난 ‘학교 밖 초등학생’들이 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간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 수는 1만6422명에서 1만9415명으로 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이 각각 5% 증가, 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비대면 교육이 ‘학교 밖 초등학생’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문제는 학교를 떠난 뒤 기댈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주무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 꿈드림센터다. 하지만 이곳에도 15세 미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A양은 꿈드림센터에 학습 멘토를 신청했으나, “초등학생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학업중단 초·중학생을 위한 교육부의 ‘꿈이음’ 사업은 홍보부족과 접근성 부족으로 외면받고 있다. B양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꿈이음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 했지만,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수강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신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다.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 종사자는 총 706명이다. 1곳당 3.18명꼴이다. 예산은 2020년 184억 9300만원에서 2024년 226억 3500만원으로 늘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명욱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안에 있을 때만큼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여가부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교육부 예산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연 기자



항원묵의 과학 산책

무던한 가위의 위력

칼과 가위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작동 원리는 다르다. 칼은 이해하기 쉽다. 얇은 칼날은 손힘만으로도 단위 접촉면적당 가하는 압력이 높아서 종이건 수염이건 잘라낸다. 하지만 날카로운수록 그만큼 약한 뜻이라 쉽게 무뎠다. 가위 날 각각은 훨씬 무뎠서 오이 하나 썰기도 힘들지만 두 개를 붙여 놓으면 자르는 기능이 증폭된다. 종이나 비닐 포장지에 가위를 적당히 벌려 갖

다 대고 그냥 밀기만 해도 깨끗이 자를 수 있다. 지익~ 잘리는 소리와 함께 미묘한 쾌감마저 준다.

가위는 날카로움보다는 날 옆 평평한 두 면이 얼마나 밀착할 수 있는가가 성능의 관건이다. 열린 두 가위 날은 V자 공간을 형성하고 두 날의 교차점으로 다가갈수록 열린 공간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가위로 종이를 자를 때 V자의 꼭짓점에 다가간 종이 모서리는 워낙 얇아 아주



가른다. 별로 날카롭지 않은 물체 두 개가 모여 성능과 내구성 좋은 가위를 이룬다.

무던 것 두 개로 예리함을 성취하는 아이디어는 분자 생물학에도 나온다. 세포들이 주고받는 작은 오라기부터 점차적으로 자를 수 있다. 두꺼운 종이는 V자 꼭짓점에 접근할 수 없어 한 번에 많은 종이 섬유를 잘라야 해서 더 힘들다. 같은 1차원의 날로 2차원 평면을 가르고, 가위는 2차원 면 두 개로 1차원의 모서리를

온갖 신호들을 담당하는 수용체 단백질을 각각 만드는 것은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유지하는 것처럼 어렵다. 가위처럼 반쪽 단백질을 두 개씩 여러 조합으로 짝지어 수용체로 만들면 다양한 신호들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새로운 발견이나 첨단기술이 나오면 이의 원리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음미한다. 수천 년 전 가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일상도 구가 되어버린 가위의 작동원리를 수억 년간 진화했고 참여의 연구과제인 수용체를 통해 뒤늦게나마 음미한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p style="font-size: 10px;">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red;">\$650,000</p>	<p style="font-size: 10px;">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하이트 부근</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red;">\$560,000</p>	<p style="font-size: 10px;">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red;">\$730,000</p>	<p style="font-size: 10px;">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red;">\$430,000</p>
--	--	--	---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에듀 포스팅

심리적 정서 돌봐야 학업 성취 이뤄...10대가 직면한 문제 이해하고 도와야

필자는 지난 30년간 교육기관과 청소년 리더십 단체를 운영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리더십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공립·사립 학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사립 학교를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학교는 단순히 공부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서적 학업적 도전과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학교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들만의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면서 정작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경험과 성취에 집중하기 어려운 형편인데도 그런 어려움을 학교가 해야 교육하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가 돌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학업적 성취마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

빠져리개 실감했었다. 그래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을 충분히 고려하며 각자가 가진 강점을 찾아 개발해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결정을 했다.

또 다른 동기는 기술혁신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이다. 학업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과목들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지난 5년간 USC대학과 연계해 듀얼인플먼트를 하거나 경제 및 과학기술의 기반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심대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다.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시기인데 사실 교사나 부모나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한다. 2024년 현재 미국의 심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도움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괴롭힘/ 친구 간 압박감**
12세에서 18세 사이의 거의 4명 중 1명이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들이 친구 혹은 사회와 연결되는 좋은 수단일 수 있지만 사이버 괴롭힘, 올려진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외모나 옷차림 혹은 행동 등에 관해 비난의 댓글들을 달아 직간접적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만드는 슬릿 웨이밍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청소년들이 불편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성적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폭력성 영상**
청소년들은 TV, 음악, 영화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 등에서 폭력에 노출

되어 있다. 폭력적인 이미지는 감정 조절에 대한 어려움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약물 및 알코올**
현재의 청소년 중 약 10.9%의 8학년생, 19.8%의 10학년생, 그리고 31.2%의 12학년생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른들이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음주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학년생의 15.1%, 10학년생의 30.6%, 그리고 12학년생의 45.7%가 지난해 동안 술을 마셨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우리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가 돌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학업적 성

취마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봐주어야겠다.

▶**우울증**
공부에 소극적인 학생들을 보면 부모나 교사들은 이들이 좀 게으른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우울감으로 인해 의욕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미국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NIMH)에 따르면, 미국의 약 500만 청소년이 적어도 한 번의 주요 우울증 사태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청소년의 20%가 성인이 되기 전에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울증은 여학생(29.2%)이 남학생(11.5%)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우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학업에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면 좋다.

새라 박 원장·AI칼리리프

커리어 코칭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면접 잘 보려면...질문·대답 준비하고 자신감·열정 보여야

오늘날의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이 면접을 보게 됐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청년들이 면접을 볼 때 상당히 긴장을 하는데 이것은 면접을 방해할 수 있다. 긴장감을 최소화하고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열쇠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다음 취업 면접에서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팁은 다음과 같다.



▶**면접 전 준비**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을 파악하라: 자신이 이상적인 후보자인 3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파악한다. 면접관의 주요 목표는 역할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술, 경험 및 개인적 특성의 조합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되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요소들의 조합

이다.
◇회사를 철저히 조사하라: 조직의 문화와 목표를 이해하고 그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실되게 전달한다. 여러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여 이상의 요소들을 생각해본다.
◇자신의 이야기를 마스터하라: 자신의 배경, 특히 이력서상의 정보를 자세히 숙지한다. 경험과 성과를 명확하고 자신 있게 전달한다.

◇행동 질문들을 예상하라: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특성과 능력의 예시가 될 수 있는 5-6개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한다. 행동 질문들에 대답할 때에는 STAR 기법을 사용한다.
◇과거의 면접을 조사하라: Glassdoor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회사의 과거 면접들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찾는다.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라: 사려 깊은 질문을 통해 회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여준다. 당신이 묻는 질문은 사전에 회사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면접 연습**
◇자주 묻는 질문을 연습하라: “자신에 대해 말해주세요”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간결하고 종합적인 답변을 목표로 한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 메시지의 핵심을 파악하면 정확하게 외우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
◇완벽한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여라: 면접관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좋은 자세와 미소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소평가 될 때가 많다.

▶**인터뷰 받아들이기**
긴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충분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면접에 앞서 심호흡을 하며 중심을 잡는다. 기억하자, 면접관은 당신이 그 역할에 왜 적합한지에 가장 관심이 있다. 해당 역할에 대한 적합성과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다음 면접에 임한다.

제임스 박 대표·LA 커리어 코칭

▶**1면 '딤페이코'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또 “어떤 필터가 뭔가를 포착했어야 했다”면서 “몇 달 동안 이러한 일이 계속 자행 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USA 투데이에 리치몬드 경찰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사법 기관에서 매일 수사 업데이트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커뮤니티에 보낸 메시지에서 그는 사진 제작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학생들은 적어도 남은 학기에는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학생은 그런 사진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이런 딤페이코 스크롤은 일선 교육 현장에 있어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식당 자리 6,408 SF, 알버나 메릴랜드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든 분 5000-8000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랙빌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비, 9000 SF, VA 헌든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잇마쉬 메릴랜드	도장	그로서리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상가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사무실	단독 건물 백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의 52만불, 8백만불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의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엘리자베스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주 택	투자 컨설팅	주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이정민, 15년만에 '메이저 퀸' “기대 안했는데, 우승 좋네요”

2010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정민(32)은 지난해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통산 10승을 거뒀다.

18세의 루키였던 2010년 5월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거뒀다. 그리고 2016년까지 8승을 거두면서 전성기를 달렸다. 2017년 슬럼프가 찾아와 잠시 주춤했지만, 2021년 10월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과 2022년 12월 PLK 퍼시픽링크코리아 챔피언십에서 차례로 정상에 오르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다.

이정민이 그동안 챙긴 통산 상금은 42억원이 넘는다. 남부럽지 않은 '10승 클럽'에도 가입했지만, 그에겐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 바로 '메이저 우승' 타이틀이다. 명성과는 달리 KLPGA 투어 5대 메이저 대회에선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랬던 이정민이 마침내 메이저 우승 가문의 한을 풀었다.

이정민은 28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 크라우드 골프장에서 열린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타를 줄여 함께 23언더파 265타로 정상을 밟았다. 올 시즌 처음으로 열린 메이

저 대회를 제패하면서 데뷔 후 처음으로 '메이저 퀸'의 자리에 올랐다. 통산 11번째 우승으로 받은 상금은 2억3400만원. 또, 전날 3라운드 17번 홀(파3)에서 홀인원을 해서 받은 7600만원 짜리 고급 외제 차량까지 더해 이번 대회에서 만 3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이정민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챔피언 퍼트를 성공시킨 뒤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했다. 1년 4개월 만에 거둔 우승이자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이었다. 이정민은 “이전까지는 '메이저 대회'라고 해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우승하니까 정말 좋다. 메이저 퀸이란 타이틀이 뿌듯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장타력과 정교한 아이언샷을 겸비해 2016년까지 전성기를 보냈던 이정민은 이듬해 왼쪽 어깨 부상으로 슬럼프에 빠졌다. 그 이후 샷이 망가져 수년간 고생했다. 결국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고안해 낸 끝에 힘겹게 슬럼프에서 탈출했다. 최근에는 퍼트 난조로 고생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스스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3라운드까지 함께 17언더파를 기록한 이정민은 16언더파의 방신실, 13언더파의 최민경과 함께 챔피언 조에서

출발했다. 2위와는 1타 차이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지만, 이정민은 초반부터 버디를 잡아내며 일찌감치 치고 나갔다. 그는 전반에만 버디 6개를 기록하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2번 홀(파3)에서 티샷을 핀 2m 옆에 붙여 1타를 줄였고, 파 4의 3번 홀에선 약 108m 거리의 어프로치를 홀 옆에 붙여 버디를 추가했다. 이어 4번 홀(파4)에서도 다시 완벽한 세컨드 샷으로 3연속 버디를 완성한 뒤 6번 홀(파4)과 7번 홀(파5), 8번 홀(파4)에서도 또다시 3연속 버디를 낚아 23언더파 단독선두로 치고 나갔다. 반면 방신실은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해 선두와의 격차가 한때 6타로 벌어졌다.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은 이정민은 10번 홀(파4)에서 1타를 잃었지만, 파 4의 16번 홀에서 다시 버디를 추가하며 승부에 췌기를 박았다. 마지막 18번 홀에선 세컨드 샷이 홀을 지나쳤지만, 정교한 퍼트로 파를 지키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4라운드 합계 265타는 KLPGA 투어 역대 72호 최소타 타이 기록이다.

이정민은 “어제 저녁까지는 우승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홀인원을 한 것에만 심취해 있었다”며 “최근 퍼트로



이정민이 28일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맞추며 기뻐하고 있다. 이정민의 데뷔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이다. [사진 KLPGA]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지난 겨울 전으로 몇 승을 거두겠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만족할 만한 좋은 플레이를 하든수 등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퍼트 감각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

고봉준 기자

이토록 매혹적인 테니스 영화가 있었나

젠데이아 주연 '챌린저스'

태양빛 머금은 땀방울이 화면 가득 되어 오른다. 테니스 코트에 선 하이틴 선수들의 육감적 몸짓과 일렉트로닉 음악이 관객의 심장박동까지 밀어 올린다. 이탈리아 출신의 감각적 로맨스 거장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테니스 소재 치정극 '챌린저스'(24일 개봉)다.

17세 소년의 첫사랑을 섬세하게 그린 '폴 미 바이 유어 네임'(2018), 식인 소녀 소녀의 로드무비 '본즈 앤 올'(2022)로 배우 티모시 샬라메를 청춘스타로 만든 그는, '챌린저스'에선 어릴 적부터 단짝이자 테니스 유망주 아트(마이클 파이스트)와 패트릭(조쉬 오코너)이 같은 대회에 출전한 테니스 천재 타시(젠데이아)에게 동시에 반한다. 10대 후반부터 13년간 세 청춘의 아

찢한 삼각관계가 마치 거대한 3세트 테니스 경기처럼 전개된다. 상영시간 131분이 숨가쁘게 흐른다.

액션 영화 '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젠데이아가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2017)의 공중곡예사 역할에 이어 테니스 여제로 변신했다. 흑표범처럼 코트를 호령하던 그는 부상으로 은퇴 후 매서운 코치로 거듭난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크라운'의 조쉬 오코너가 본능에 충실한 승부사 패트릭을 연기했다.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2022)에 출연했던 마이클 파이스트는 아트를 통해 단단한 육체와 우울감을 겸비한 모순적 캐릭터를 감성적으로 소화했다.

시작은 정상급 프로 선수가 된 아트의 슬럼프. 은퇴 후 자신의 코치가 된 타시와 결혼해 딸을 두지만, 잠시도 방

심할 틈 없다. 그는 챌린저급 대회에서 10여년 만에 패트릭과 맞붙게 된다. 패트릭은 숙박료가 없어 데이트앱으로 원나잇 상대를 구하고, 대회 참가 상금으로 먹고 사는 처지다. 그러나 여전히 수려한 외모로 타시를 욕망하며 부부 결을 맺는다.

아트와 패트릭의 운명이 걸린 이 결승전 상황에, 세 사람의 과거사 플래시백이 맞물린다. 10대 때 아트와 패트릭은 타시의 연인 자리가 걸린 첫 시합을 벌인다. 그러나 1년여 뒤 타시의 시합 중 부상으로 셋의 관계가 역전된다.

마치 타시가 우승 트로피인 양 승리를 위해 으르렁뿔던 두 남자는 엔딩신에선 전혀 뜻밖의 결말을 맞는다. 아트와 패트릭이 타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본심을 인정했다라면, 셋의 인생이 이 정도로 꼬이지 않았으리란 탄



테니스 선수인 한 여자와 두 남자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 '챌린저스'. [사진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식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다. 구아다니노 감독은 "욕망과 통제의 역학관계가 테니스라는 스포츠의 아름다움과 몸놀림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이해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영화는 욕망의 육체적 표현에 충실하다. 테니스공에 카메라를 대단듯 코트 위를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샷부터, 코트 바닥을 투명하게 만들어 땅속 시선으로 선수들의 시합을 올려다본 실

험적 촬영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하다. 테크노와 일렉트로니카를 베이스로 한 음악은 아카데미 음악상 2관왕('소울' '소셜 네트워크') 트렌트 레즈너와 에티커스 로스 음악감독 콤비의 솜씨다. 비평가사이트 로튼토마토 전문가 평점에선 구아다니노 영화 중 최고 점인 '폴 미 바이 유어 네임'(94%)에 이어 2위인 91%(만점은 100%)를 받았다.

나원정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정 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각별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챌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코리안리에서 3분, 워싱턴 로드와 워튼 하이웨이(427)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로드/윈아웨이(427)와 챌리리 로드에서 각각 5분거리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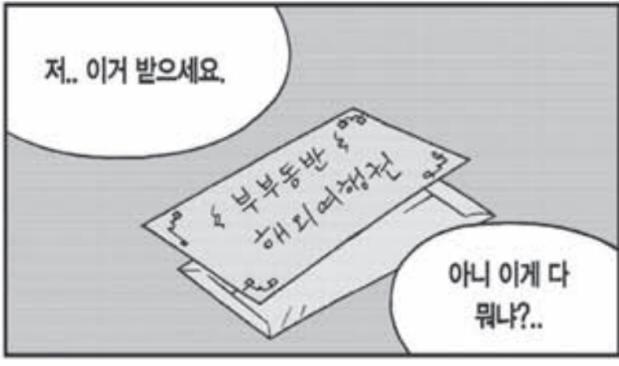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부모**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우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광고문의: 703-281-966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wan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국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 이후,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넷서설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르뱅 베이커리 캐쉬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워싱턴 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타프를 구합니다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물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티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우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니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중앙일보

〈세탁/엘트레이션〉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 엘리트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트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 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타임/풀타임, 엘리트시티.
 410-750-0483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 (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프!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워키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캐번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프, 전기 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프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라퐁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 전공 / 지휘 전공 / 음악 전공(지
 휘 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호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우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방,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볼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맥,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 3 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교
 410-599-1800
 스포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 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맞은편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랑 길에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 유니온빌 물 부근 싱글홈 반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홈 방1개,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렌트
 지하방+거실, 윗층 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
 방렌트, 홈디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 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 뒤편 타운하우스
 지하실 방 하나 렌트. 목욕탕, 화장실
 703-887-5173
 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
 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MD 렌한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직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노스 포드맥,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 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단층 구조) 추천 \$495,000
 1층(방3)과 반지하(방1, 화1)에 각각 방, 화장실 보유
 I-66 Highway에 근접, 교통 편리한 지역
 병원, 사핑몰, 그로서리 등 근린생활 용이

1층 콘도 (시니어 생활 편리) \$350,000
 방2, 화2, 1,200 스퀘어,
 여유로운 주차 환경,
 저렴한 콘도피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장 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장 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장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장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장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3개, 화장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장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 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 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입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아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엿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정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 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i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 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술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힐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사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춘 2분 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 보호자 봉사 하실 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세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sizing)세일
-treadmill & bike machine \$100
-베라렘 \$100 -3bikes \$100
-tools \$100 -living room set \$300
문의: 703-581-2631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10.000/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묘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50(사용설명서)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센트 4-9 S P번까지 8개
-던랍(스페인제)3-9 P S 7개
-요백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서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클 파워 스틱삼무,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우워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다쉬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팅/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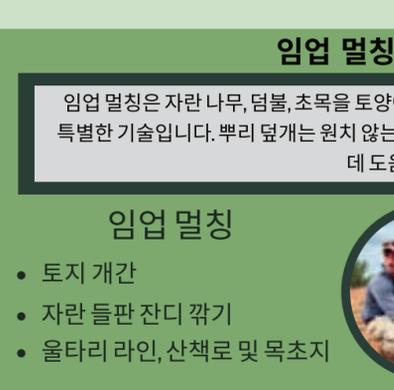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un a temperature; 열이 있다

Anna is talking with her husband Jack. (애나가 남편 잭과 대화하고 있다.)

Anna: Jack are you all right? You look totally wiped out.
애나: 잭 괜찮아? 완전히 녹초가 됐네.
Jack: And that's how I feel. I don't know if I'm just worn out or if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잭: 녹초가 되긴 했는데 그냥 지쳐서 그런 건지 병이 난 건지 잘 모르겠어.
Anna: Let me feel your head. Oh! You're burning up. You must be running a temperature.
애나: 머리 좀 만져볼게. 이런! 불덩이잖아. 열이

많이나.
Jack: Maybe I've caught the flu. My throat hurts and I ache all over.
잭: 독감에 걸린 것 같아. 목도 아프고 온 몸이 쑤셔.
Anna: Go lie down. You need to sleep.
애나: 가서 좀 누워있어. 잠을 자야겠는데.
Jack: That's probably a good idea.
잭: 그래야 되겠어.
Anna: If it gets worse I'll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doctor.

애나: 더 안 좋아지면 병원 예약을 해 놓을게.
Jack: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I'm sure I'll feel better after I get some sleep.
잭: 그럴 필요 없어. 한숨 자고 나면 괜찮겠지.
Anna: I hope you're right but if you aren't better I should call the doctor.
애나: 그럼 좋지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의사한테 연락 해야겠어.
Jack: Do whatever you want. I'm going to bed.
잭: 그럼 그렇게 해. 난 좀 쉬어야겠어.

기억할만한 표현

- ▶worn out: 녹초가 되다.
- "The students were worn out after the three hour test." (3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고 나더니 학생들은 녹초가 됐습니다.)
- *come down with (something): (무슨 병에) 걸리다.
- "He came down with a cold but he's better now." (그는 감기에 걸렸지만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가로 열쇠

(1)겉보다는 실속이 있는 부자 (3)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하였다. □개□□ (5)문짜를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 (7)기능이나 기술 따위에서 소질과 솜씨가 뛰어난 사람. 활의 ~ (9)아궁이 따위에 불을 뿜 때에,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거나 하는 데 쓰는 막대기 (10)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조개, 미역 따위의 산물 (11)인격화한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이솝 ~ (13)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 ~을 헤쳐 나가다 (14)물건을 사서 넘겨받은 사

람 (15)남편이 앞장서서 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16)액체, 가루 따위를 흩어 뿌림. 선자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선관위에서는 금품 ~를 엄중히 감시했다 (18)뜻을 세워서 고난을 잘 참고 노력하여 그 뜻을 이룬 사람의 전기 (20)밤 한 그릇과 반찬 한두 가지만으로 아주 간단히 차린 밥상. 쥐□□□ (21)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

●세로 열쇠

(1)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갈라서 얇게 부쳐 잘게 썬 고명 (2)어떤 일에 대해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음. 그들은 전문가의 ~을 받아 일을 처리했다 (3)쌀밥에 엿기름을 부어 삭혀서 끓인 음식. 단술 (4)쓸모없는 물건이나 사

람 (6)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쇠귀에 경 읽기 (8)먹으로 질고 엽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 (9)주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더듬어 생기는 물건 (11)어물 거리며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력이 없음. 그는 회의적이고 ~한 햄릿형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유□□ (12)가죽 먼저 벗기고 털을 뜯는 것은?(수수께끼) (13)한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액운 (14)끝이 빠죽하게 아래로 숙은 코 (17)어린이를 덮어 주거나 업을 때 쓰는 작은 이불 (18)상을 타게 되는 등수 안에 들. 화려한 ~ 경력 (19)잘게 썬 고기에 양념, 채소, 버섯, 해물 따위를 섞어 국물을 조금 부어 끓인 음식

스도쿠

6					8	1		5
3	4		6					
	7			9				
2			3					
4	3		7	6	1		2	8
					2			9
				3			7	
				4			8	1
9		1	8					3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5	4	2	8	1	9	6
1	8	9	4	5	6	3	2
2	2	6	9	3	1	4	8
6	9	3	4	5	2	1	8
8	2	5	1	9	2	6	4
4	1	2	6	8	3	9	5
9	4	8	3	6	2	5	1
2	6	2	5	1	9	8	4
5	3	1	8	2	4	2	6

ㄷ	ㅅ	ㄹ		ㅍ	ㅊ	ㅌ	ㅍ	ㅍ
ㅊ		ㅍ	ㅅ	ㅍ		ㅌ		ㅊ
ㅍ	ㅌ				ㅌ	ㅌ	ㅍ	ㅌ
	ㅌ			ㅌ	ㅌ	ㅌ		ㅍ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ㅅ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내기 \$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데빵 슈프 0명 *스시 슈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길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THE KOREA DAILY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흥풍기는 바르는 생생활 흥분제, 율활유 젤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Up to 40% 할인
 미라클치로 살기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졸람·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빠른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빠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 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금이곳만 **모든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상삼음육단 도안역사당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BAYVIEW ADVISORS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CHRIS CHUNG MANAGING DIRECTOR 516-321-0353 chris@bayview.llc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회사 설립 도와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경력 QR code 참조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CONTACT US : EMAIL / TXT ONLY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품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적외선 방출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 열선 물세탁 가능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 린 \$379 트윈 \$229 | 린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 더블 \$299 싱글 \$169 |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 더블 \$359 싱글 \$219 |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 대형 \$465 중형 \$335 |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 린 \$419 트윈 \$299 | 린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